

2012 런던올림픽 가이드 북



Inspire a Generation

세대에게 영감을



스포츠문화연구소

목 차

1. 관전포인트

1) 경기외적 7대 관전포인트	-----	3
2) 경기 및 기록 7대 관전포인트	-----	4

2. Opinion

1) 올림픽의 문화정치학 (권경우 문화평론가)	-----	5
2) 올림픽과 닭, 그리고 '멘붕' 언론 (정희준 동아대 교수)	-----	6
3) (런던)올림픽마케팅과 관련한 법적 이슈 (장달영 변호사)	-----	7
4) 과학적 관전 포인트 (이대택 국민대 교수)	-----	8
5) 현재 진행형의 1948년 런던올림픽 (이대택 국민대 교수)	-----	11
6) 올림픽 경기에 대한 집단주의와 다양성 (이민표 영원중학교 교사)	-----	11
7) 2012 런던올림픽 이 경기, 이 선수를 주목하자 (장달영 변호사)	-----	14
8) 행복한 여성체육을 위한 불온한 제언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	16
9) 강화의 윤리 - Against Excellence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	19

3. History

1) Wenlock Olympic (웬록올림픽)	-----	20
2) 올림픽개최지 이야기	-----	23

4. Information

1) 런던올림픽		
- 개요	-----	31
- 마스코트	-----	32
- 세부종목	-----	32
- 메달	-----	

2) Team Korea		
- 선수소개	-----	
- 경기일정	-----	
- 역대성적	-----	

5. 스포츠문화연구소 소개 -----

1. 스포츠문화연구소 선정 7대 관전 포인트

1) 경기외적 7대 관전 포인트

<p>① 2012대선, 올림픽과 표심</p>	<p>이명박 정부가 기대하는 again 2008 가능할까?</p> <p>2008 베이징올림픽 열풍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잠재웠다. 베이징올림픽열풍으로 이명박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서 30%대로 급상승. 그후 4년, 형님구속과 불법사찰도 올림픽에 묻혔다. 런던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p>
<p>② 문대성 IOC선수위원 퇴출은?</p>	<p>Clean IOC, 정말 클린할까?</p> <p>로게 IOC위원장은 문대성 논문 표절과 관련해 지난 5월 "한국으로부터 논문표절자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성 IOC선수위원 퇴출은 클린 IOC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p>
<p>③ MBC, 올림픽중계로 살아날까?</p>	<p>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시청률 1.7%.</p> <p>망가진 MBC가 올림픽으로 되살아날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올림픽후광으로 김재철사장의 임기가 보장된다면? 올림픽을 앞둔 MBC 노조원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잘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어느 쪽일까?</p>
<p>④ 올림픽특수, 반짝 효과 있을까?</p>	<p>맥주집 사장님도, 치킨집 아저씨도, 삼성전자 회장님도 올림픽을 기다린다. 올림픽은 4년마다 돌아오는 대목.</p> <p>유럽재정위기로 휘청거리는 세계경제가 일장춘몽을 꿈꿀 수 있을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특판가격을 내놓았다.</p>
<p>⑤ 스포츠과학 어디까지 왔나?</p>	<p>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지만 기술발전에 한계가 없다?</p> <p>올림픽은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한 과학기술의 전쟁이기도 하다. 나이키는 피부처럼 느껴진다는 마라톤화를, 아디다스는 온도조절 시스템을 갖춘 유니폼을 내놓았다. 스포츠과학의 끝은 어디일까?</p>
<p>⑥ 흑자올림픽 탄생할까?</p>	<p>영국의 목표는 금메달도 아니고 톱10도 아닌 흑자올림픽!</p> <p>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도 선수촌도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고철 녹여서 경기장 짓고, 폐자재도 활용하고. 그러나 흑자올림픽은 언감생심. 언제나 그럴듯 이름있는 컨설팅회사는 오늘도 나발분다. "런던올림픽 경제효과 9조 2,000억원"</p>
<p>⑦ 올림픽 파워게임, 총총시하</p>	<p>중국까지 행세하려고 하니.. 올림픽은 총총시하</p> <p>평화와 화합을 내세운 올림픽, 과연 공정할까? 판정시비없는 올림픽은 없었다. 미국등쌀에, 유럽눈치에 이젠 중국까지. 고래싸움에 고래등 터지고 새우는 안전한 올림픽, 실현될까?</p>

2) 경기 및 기록 7대 관전 포인트

<p>① 대한민국, 3회연속 톱10</p>	<p>2004 아테네 9위 2008 베이징 7위 2012런던? 3회연속 톱10에 도전한다. 인구규모와 국토면적, 경제력등등을 고려해보면 대한민국의 올림픽 성적은 정말 놀랍다!</p>
<p>② 문대성(2004) - 박태환(2008) - ?</p>	<p>문대성(2004), 박태환(2008)의 뒤를 이을 스타는? 아테네올림픽에서의 돌려차기 한방으로 IOC선수위원까 지된 문대성. 베이징올림픽 수영 400m 금메달의 주인공 박태환. 그의 뒤를 이을 2012 런던의 영웅은 누구일까?</p>
<p>③ 박태환, 수영사상 최초 올림픽 2연패 & 한국축구, 올림픽 4강 도전</p>	<p>올림픽열풍의 키는 박태환과 축구! 모든 종목과 모든 메달이 다 소중하지만 2012년 8월, 대한민국을 올림픽 열풍에 빠뜨릴 주인공은 단 두명. 박태환의 금메달과 한국축구 올림픽 4강이다.</p>
<p>④ 중국, 미국의 종말 선언할까?</p>	<p>차이나 파워, 런던에서도 통할까?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은 중화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국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2008년 은 홈코트. 런던에서도 미국을 제친다면 명실상부하게 런던올림픽은 미국의 종말과 중국의 패권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p>
<p>⑤ 마이클 펄프스 & 우사인 볼트</p>	<p>2008베이징올림픽 수영 8관왕 펄프스와 육상 3관왕 우 사인 볼트의 영광이 런던에서 재현될까? 훈련파트너였던 요한 블레이크가 자메이카 대표선발전 에서 볼트를 앞섰고 펄프스는 미국의 희망 라이언 록티 를 만나게 된다. 런던올림픽 최고 스타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벌이게 될 볼트와 펄프스의 운명은?</p>
<p>⑥ 인간한계에 대한 도전, 남자100m ▪ 남자마라톤 세계신기록</p>	<p>스포츠는 인간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한계에 대한 도전은 남자 100m와 남자 마라톤으로 상징된다. 남자 100m와 남자 마라톤 세계신기록은 각각 9초58과 2시간3분38초.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남자 100m와 남자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p>
<p>⑦ 런던판 우생순의 감동은?</p>	<p>올림픽엔 언제나 휴먼스토리가 있다.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받고 일어서 선수들, 아버지 영전 에 금메달을 바친 선수, 고생하는 어머니를 떠올린 선 수, 장애를 딛고 세계정상에 올라선 선수. 2012년 런던 에서 우생순의 감동을 안겨줄 선수는?</p>



올림픽의 문화정치학

권경우 (문화평론가 / nomad70@daum.net)

'지구촌 축제'라고 불리우는 올림픽이 다가왔다. 올림픽을 본다는 것, 혹은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스포츠라는 매개행위를 통한 인간신체의 향연이라는 사실이다. 누구나 인간 신체의 원시적 매력에 환호하고 열광할만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매혹을 거부하지 말자. 왜 그토록 매혹당하는 것인지 너무 따지지도 말자.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의 진화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쯤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 그저 수많은 종목과 영역에서 펼쳐지는 개별적인 인간들이 전해주는 그 신체의 다양성에 세밀하게 주목하면 된다. 그것에 흥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무한성과 가능성, 아름다움을 통해 이성이 아닌 감각과 감성의 문제로 바라보자.

물론 올림픽을 보는 과정이 여기서 그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4년만의 스펙타클을 새로운 관점에서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금메달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스포츠와 민족주의, 애국심이 버무려진 한국사회에서는 언론이 앞장서서 금메달에 목을 맨다. 언론에 표시되는 순위에는 항상 금메달이 하나라도 많으면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아무리 많더라도 순위에서 밀린다. 원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국가별 메달 순위를 매기지 않았으나, 지금은 금메달 수에 따른 메달 순위와 함께 금,은,동메달 수를 합한 수를 병기하고 있다. 금메달 지상주의는 엘리트체육 혹은 경쟁중심의 1등 지상주의와 관련이 있다. 다양한 국가와 인종, 계층, 종목등에 주목할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그 열기에 너무 빠져들면 안된다. 런던올림픽이 문화와 예술을 중요한 볼거리로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한류 열풍을 올림픽이 열리는 런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었다고 해서 애국주의에 빠지지는 말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와 1980년대 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대통령이 새벽 시간이라도 경기를 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이번 올림픽이 성적이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덮여주기를 기원할지도 모른다.

또한 올림픽 개최가 갖는 그 자체의 부정적 모습이나 효과들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떠올려보자. 당시 개막식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지구촌 사람들이 매료되었다. 그것은 한 편의 거대한 규모의 완벽한 '쇼'에 불과했다. 어린 소녀의 립싱크 논란, 준비과정에서의 개막식 행사 참가자들의 고통,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속임수, 소수민족 대표라고 세워놓은 아이들은 모두 한쪽이었다는 사실 등은 올림픽의 정치학이 어떤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 공영방송 KBS에는 경찰이 난입했다. 역시 같은 기간에 광복절은 갑자기 '건국절'로 둔갑했으며, 촛불집회의 외침은 금메달 소식에 묻히고 말았다. 그나마 MBC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돌아간 것은 올림픽을 통해 벌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등을 막아보려는 의지라고 보고 싶다.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 흥분과 열광도 인정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끝난 이후에 냉철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마저도 이번 올림픽에도 이명박대통령은 '거꾸로 태극기'를 들고 흔들까? 이걸 장담할 수 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적어도 한 번은 '뺨짓'을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줄 것이다. 스포츠도토가 있다면 '몰빵'할 수 있다.



올림픽과 닭, 그리고 '멘붕' 언론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올림픽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올림픽 돈벌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가전업체가 신발끈을 동여댔다. LCD TV 수요가 10% 이상 늘 거란다. 그러고보니 요즘 한 TV광고는 '3D'로 보라고 하고 경쟁사는 '스마트'하게 보라고 우리를 꼬드긴다. 방송, 인터넷업체, 광고업체도 올림픽 수혜주가 될 거라 한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업종이 있다. 우선 맥주업체. 여름철 성수기인 데다 올림픽이 열려 매출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란다. 그렇다면 맥주의 천생연분 배필은 누구인가. 바로 치킨 아니겠는가. 요즘 '치(킨)맥(주)'이 대세란다.

우리나라의 하루 닭 소비량 150만마리 중 프라이드치킨으로 100만마리가 나간다. 그런데 2010 월드컵 때 한국전이 있는 날이면 매출이 다섯 배나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 모자라게' 경기 1시간 전에 치킨집에 전화했다가 10군데 몽땅 통화 중이어서 치킨을 먹지 못했던 손석희 교수가 2차전을 앞두고 아침부터 일갈하지 않았던가. "아침 먹고 바로 치킨을 예약하라"고.

월드컵의 경우 한국팀 경기 때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닭을 먹어치우지만 올림픽은 245명의 선수가 22개 종목에서 30개 이상의 메달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마리의 닭이 생을 일찍 마감해야 할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2000만마리의 닭이 스포츠 코리아의 제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들썩이는 경우도 못 봤지만 TV 판매가 갑자기 10% 이상 늘고 폭음과 폭식을 하는 나라도 본 적이 없다. 스포츠에 가장 광적인 미국에서도 어느 도시의 프로팀이 우승할 경우 맥주 소비량이 늘긴 하지만 한국처럼 큰 차이도 아니고 그나마 지역적 현상일 뿐이지 전 사회적 현상은 아니다. 이는 우리 여가문화의 척박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주의 여가'의 등장이기도 하고, '애국주의 식성'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만 되면 평소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물론 그 출발은 10년 전의 월드컵일 것이고, 그 이유는 미디어 스포츠의 발달이니 애국주의의 상품화니 하며 몽똥그려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확하게 겨누고 싶다. 그 배후의 원흉은 바로 언론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때면 이성이 짐을 나가버리는 현실은 바로 언론의 작품이다.

2002년부터 중복편성, 동시중계가 고착화되더니 2006 월드컵 때 지상파 방송사들은 하루 최고 21시간의 축구 싹쓸이 편성을 감행했고 2008 올림픽 때도 (청와대의 '분위기 띄우라'는 명령 때문인지) 메인뉴스의 반 이상을 올림픽으로 채워버렸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때는 주최국인 미국도 관심이 없는 대회를 가지고 연일 '세계가 경악했다'는 기사를 '써 대더니' 2010년 지상파 3사는 아예 김연아 헌정방송이 돼버렸고, 몇 달 후엔 아시안게임 소식까지 연일 메인뉴스 헤드라인에 편성했다. 그래도 신문은 조금 낫다고? 천만에. 올림픽 때면 각 신문사 홈페이지는 '올림픽 특별판'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 수많은 올림픽 기사와 그 밑에 굴비처럼 엮여 내려가는 딸림기사들을 피해갈 수 없다.

외국의 언론은 어떨까. 자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톱기사로 올리기도 하지만 그 외엔 스포츠 섹션에 가지런히 모여 있다. 미국의 NBC는 현지에서 메인뉴스를 전하기도 하지만 올림픽 소식을 너댓 쪽지 이상 내보내지 않는다. 자고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창문, 방문까지 몽땅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도배를 해버린다. (그게 언론이나.) 보통 '언론은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버린다. 우리는 이번에도 '멘(털)붕(괴)' 언론을 볼 것인가.

이번엔 언론이 언론다웠으면 한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수백만의 닭머리들이 당신 꿈에 나타날 것이다.

정희준선생님의 글은 2012년 7월 16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런던)올림픽 마케팅과 관련한 법적 이슈

장달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1.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개인적 마케팅활동 금지 논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올림픽 무대에서 우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주는 경기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자는 선수들이어도 불구하고 정작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아닌 ‘IOC’이다. IOC는 올림픽 스폰서십과 방송중계권료 등으로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선수들은 올림픽을 이용한 광고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면 공정한 것인가, 불공정한 것인가?

IOC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올림픽 스폰서가 아닌 타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거나 자신의 몸 또는 유니폼을 통한 스폰서 로고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출전금지 또는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자신의 페이지에 스폰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최근에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의 몇 선수가 이러한 IOC의 마케팅 정책에 반기를 들고 올림픽 기간 동안 자신의 광고주를 문신을 통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새긴 셔츠 판매를 통하여 수익활동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IOC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관련규정 위반을 경고하고 나섰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개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스폰서 기업과 스폰서가 아닌 기업을 차별하는 것의 타당성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가?, IOC 자신의 수익을 위해 선수들의 수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은 실효성과 관련하여 사실상 위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스폰서가 아닌 기업의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등 수익활동을 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선수는 거의 없다.

2. 엠부시 마케팅은 훌륭한 마케팅 전략인가? 도둑질인가?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릴 때면 IOC와 해당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엠부시마케팅’이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자가 올림픽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올림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마케팅에 대하여 한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마케팅의 한 기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올림픽 관련 휘장, 로고 등을 자신의 마케팅 활동에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상표법·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법 위반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영국정부는 2007년에 2006년 제정된 ‘런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법’에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가 엠부시 마케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작년 12월에는 위 ‘런던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법’을 개정하여 ‘엠부시 마케팅’의 광고 규제를 위해서 초안을 영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기존의 법 내용을 수정하여, 긴급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사후 각 상원과 하원의 결의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영국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경기장 주변에서 이른바 물건판매 등 상업적 활동이나 광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이미 사전신청을 받아 허가절차를 마쳤다.

이러한 엠부시마케팅에 대한 IOC나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의 규제 내지 제한이 부당하고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

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 내지 제한의 배경에는 올림픽 ‘파트너’라고 하는 공식스폰서의 입김이 있는 것이다.

3. 올림픽 이념과 스폰서 유치는 따로 국밥?

IOC가 내세우는 올림픽 이념(Olympism)은 ‘sport for all’, ‘peace through sport’, ‘education through sport’, ‘sport and environment’, ‘women and sport’이다. 따라서 IOC의 모든 정책, 활동 등은 위 이념들을 바탕으로, 위 이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각에서 과연 IOC의 스폰서십 정책(TOP)이 IOC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것이 IOC가 이번에 ‘Dow Chemical Company’를 올림픽 공식 스폰서(Partner)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환경 및 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1984년 인도 마디아프레디시 주 보팔(Bhopal) 지역에서 발생하여 2,259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카바이드’공장에서의 가스 누출 사고에 책임이 있으며, 인종차별, 뇌물 사건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Dow’가 올림픽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Dow’를 옹호하며 올림픽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

물론 최근에 올림픽의 마케팅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듯이 향후 스폰서십에 관하여 IOC의 염려가 있는데 재정적 가치를 우선하는 일부 IOC의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비만문제에 일각의 책임이 있다고 공격받고 있는 ‘맥도널드’와 ‘코카콜라’가 과연 올림픽 스폰서로 적격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런던올림픽과 관련하여 런던에 세계최대의 맥도널드 샵이 생기는 사실에 대하여 영국의사단체(British doctor's group)가 비만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과학적 관전 포인트

이대택 국민대 교수

① 도핑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회장은 107명의 선수가 이번 런던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 발표했다. 도핑 때문이다. 지난 6월 중순까지 최소한 107 명의 선수가 규정에 위배되는 도핑을 했으며, 이로 인해 WADA, 각 스포츠연맹, 그리고 올림픽 주최측이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도핑에 대한 검사와 추적이 더욱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과연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선수들이 도핑검사 그물에 걸릴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② 선수복장, 유니폼

비치발리볼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중의 하나이다. 96 아틀란타 올림픽 이후 급성장해왔고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도 15,000 석의 임시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연인원 50만 이상의 팬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비치발리볼은 상당히 격한 운동이며, 게임자체의 진행과정도 흥미진진하다. 경기장은 야외이기에 때론 쌀쌀한 날씨에서, 때론 기온이 떨어지는 늦은 오후까지 경기가 진행된다. 당연히 선수들이 떨 수 있다. 보다 좋은 실력발휘를 위해서는 근육이 따스해야하며, 그래서 선수들은 걱정이다. 궁여지책으로 긴 팔옷과 레깅스를 입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가 보다. 그런데 비치발리볼이 팬들을 끌어모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선수들의 비키니 아니던가. 긴팔에 긴바지? 글썄. 그러나 딱 달라붙는 옷이라면 선수들의 곡선 자태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여하튼 비키니와 long sleeve 의 차이를 한번 평가해 볼일이다. 최소한 매니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자. 날씨가 덥기를 바라던지.

비치발리볼이 팬들에 대한 시각서비스라면, 유니폼이 선수의 기량과도 연계한다. 전체 26개 종목의 남녀 선수들

에 따른 의상(?)과 색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일이다. 그들의 복장과 유니폼은 단순한 패션이나 디자인 또는 눈요기 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수영선수들의 shark skin 이 그러하고, 육상선수의 달라붙는 타이즈가 그러하며, 트랙 사이클 선수의 매끈한 유니폼 표면이 그러하다. 선수들의 옷은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는 목적이 아닌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옷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던져볼 일이다.

③ 흑인수영선수?

Cullen Jones, 그는 미국의 흑인 수영선수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은 400미터 자유형 릴레이에서 우승한다. 그때 뽀뽀다. 이번에 그의 도전은 더욱 커졌다. 미국대표 선발전에서 50미터에서 우승하고 100미터에서 2등을 차지한다. 물론 400미터 릴레이에도 참가한다. 흑인은 수영종목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항상 소수자였다. 생리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흑인은 수영에 약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번 증명하였고, 이번 올림픽에서는 더욱 그러한 세간의 믿음을 깰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의 수영을 한번 보자.

거꾸로 보자. 특정한 종목에 특정한 인종이 더 유리해 보인다. 수영이 백인들의 전유물이라면, 박태환과 중국의 쑨양은 이에 맞서는 동양인 선수다. 백인에는 훨씬 뒤지지만 그래도 동양인 수영선수 숫자도, 아니 상위에 랭크된 선수도 점차 많아져간다. 마라톤의 경우라면 이는 거의 흑인의 전유물 특히 몇몇 국가에 국한된다. 정말 그럴까. 인종이 스포츠 종목에서 특별하게 유리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일까. 일반화가 가능하더라도 스포츠에서는 항상 예외가 존재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 벌써 기대된다.

④ 선수들이 체형과 체구

100미터 달리기 선수는 큰 근육을 갖는다. 마라톤 선수는 마른 체형에 긴 다리를 갖는다. 체조선수는 작다. 역도와 레슬링 선수들은 짧은 다리와 짧은 팔을 갖는다. 왜 그럴까? 그 종목이 그러한 체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체형을 가져야만 그 운동에 유리해서이다. 체형은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선수의 힘과 기술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돕는다. 긴 다리는 한 번의 발디딤이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육상선수들에게 있어 그래서 긴 다리는 필수다. 그런거다.

체형이 어느 정도 타고나거나 훈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체구는 또 다른 문제다. 큰 체구는 힘을 내는데 유리하지만 움직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작은 체구는 빠르게 움직일 때 유리하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적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작은 체구는 큰 힘을 내지 못한다. 큰 근육이 더 많은 힘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호와 이종범을 보자. 대호는 훈련에 강하지만 도루는 쟁쟁하다. 종범은 빠르지만 훈련타자는 아니다. 그런거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의 종목에 가장 부합하는 상태로 두 가지, 그러니까 힘과 스피드를 최적화하는 수준에서 체구를 결정한다. 모든 종목은 그 종목에 부합되도록 하는 체구를 요구한다.

그런데 선수마다 체형과 체구가 다른 종목들이 눈에 띈다. 특히 구기종목과 단체종목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진다. 왜일까? 간단하다. 그 구기종목과 단체종목은 다양한 기능의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구의 가드와 센터가 다르듯이, 핸드볼의 그리고 배구의 몇 안되는 선수들마저 체형과 체구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더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기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많이 팬들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를 결과에만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부터는 선수들의 체형과 체구를 한번 자세히 보자. 참으로 흥미로운 육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올림픽은 이 모든 것을 one stop shopping 가능하게 해주는 장이다.

⑤ 음식과 식사

선수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기사를 보자니 박태환선수의 체력담당 권태현 트레이너는 이명천 단국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박태환 선수에게 맞춤 식단을 따로 구성했다고 한다. 이미 선수들의 최고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다양한 영양학적 접근들은 과학적으로도 상당부분 밝혀져 있고 또한 그에 맞추어 선수맞춤형 식단이 짜여지는게 일반적이며 대세이다. 물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지라도 대략적으로 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먹는가를 보면 대략 그들이 먹는 것까지 전략을 구사하는지를 눈치 챈다. 마라톤을 뛰는 중간에도 선수들은 자신들의 고유 래시피를 가지고 중간 보급대에서 자신의 것으로 표시된 버너를 집어 들고 먹는다. 보통의 경우 대회운영 측에서 준비한 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만약에 최고의 선수로 금메달에 대한 기대의 눈총을 받는 선수들이 시합전날이다 당일 날 선수촌의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이것 저것 주는대로 먹는다면 그 선수, 분명 금메달 따기는 글렀다. 시합전 몇일 동안 먹는 것이 선수의 메달색깔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하기에.

체중을 조절하거나 체중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에서는 먹는 것에 더욱 민감하다. 심지어 물까지 조절해서 마신다. 먹는 시간도 정해둔다. 시합을 대비하여 역산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다. 물론 음식문화가 다르고 선수마다의 먹는 버릇이 다르기 때문이다.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준비가 더욱 철저하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유럽의 몇몇 나라와 함께 스포츠 과학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린다. 선수수가 많기도 하지만 먹는 것에서도 분명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종목에 따라 선수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한번 살펴볼 일이다.

⑥ 새로운 기술

올림픽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항상 선수들과 코치 감독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독차지한다. 이전에 없었던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그 기술을 이용하여 더 좋은 기록이나 기량을 선보이면 이후의 판도를 완전히 갈아치우기 때문이다. 양학선이 그 중심에 있다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기술' 그의 기술은 국제체조연맹의 채점집 규정에도 있더니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육체를 이용하여 구사하는 기술은 체조 외에 다른 종목들에서도 존재한다. 다이빙이 그러하고 수영이 그러하고 리듬체조가 그러하며, 트램폴린이 그러하다. 거의 모든 종목에서 새로운 기술은 등장한다. 이전의 기술에 비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무엇이며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눈여겨볼 만하다.

⑦ 장비싸움

스포츠 몸으로 때우는 경기와 장비가 상당부분 때워주는 경기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어떤 경기들은 그 장비 자체가 하도 고가라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스포츠가 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사이클, 승마(장비는 아니지만), 조정, 요트 등이다. 물론 이들 장비를 각 국제연맹에서는 시합에 참가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만 선수들의 저변확대와 장비공급의 용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함부로 훈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어쩌면 부유한 나라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싸움을 그들은 스포츠과학의 또는 스포츠 향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나보다. 보다 정교한 장비를 만들고 그 장비와 함께 훈련해가는? 특히 트랙사이클을 한번 눈여겨볼 일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천변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꽤 많이 늘었다. 이들이 참으로 군침 흘릴만한 자전거를 많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 자전거는 인간이 많은 최고의 기계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로 그 트랙용 자전거들은 일반시중에서 절대 사지 못하는 사이클들이다.

⑧ 판정시비

판정시비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번에도 판정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이 있을 것이다. 기대는 하지 않지만 분명 있을 것이다. 판정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종목단체들은 최대한의 정확도를 위해 노력한다. 규정에서, 심판교육에서, 판정항목에서 모든 것을 정비하는 노력을 보인다. 그럼에도 판정시비는 또 등장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어필의 기회를 주고, 심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각 종목에서 시비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기술적 방법들이 동원되는지 관심 있게 볼 일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다양한 장비들도 동원될 것이다. 그런데 장비를 이용한 판정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도 될까?

가슴이 짠하다. 기록이 흐려서이기도 하고 지워져서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그려지는 스토리가 움트는 싹의 힘겨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 한국팀에 대한 내 감정이다. 아직 나는,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의 선수와 임원이 런던에 갔는지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흑백의 사진으로만 남은 선수단의 사진 속의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길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약 70여명의 우리의 동포들은 그렇게 런던에서 치열하게 경기했다.

1948년 6월21일 선수단은 서울 YMCA 체육관에 집합하여 종로와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한다. 8시발 해방자호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배를 탄다. 일본에서 몇 일 간을 머문 선수단은 다시 배를 타고 상하이로 거쳐 홍콩으로 가서 제1대와 제2대로 나뉘어 비행기에 오른다. 제1대 27명은 7월4일, 제2대 40명은 7월7일에 출발한다. 비행도 고달팠다. 태국, 인도, 이란, 이집트, 이태리, 네덜란드 등을 경유해 각기 7월8일과 11일에 런던에 도착한다. 서울을 떠난 지 18일과 21일만이다.

‘코리아’는 17개 종목 중에 육상, 농구, 복싱, 사이클, 축구, 역도, 레슬링, 이렇게 7개의 종목에 모두 52명을 파견한다. 실제로 51명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서도 46명만이 경기를 뚫는다. 마라톤은 4명의 선수가 파견되었지만 한 국가에서 3명까지 경기를 뛰었고, 축구의 후보선수 5명은 경기장을 밟아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실력과 기권 그리고 예선탈락이 코리아의 대부분 전적이었다. 그러나 메달의 수확도 있었다.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동메달을 땀다. 한수안의 준결승전은 부당한 심판의 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건립되기도 전에 참여했던 올림픽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다. 나라 없는 설움이야 오죽했을까. 이제야 태극기를 달고 뛰는 터이니 얼마나 이를 악물고 뛰었을까. 그러나 경기가 단지 투지와 민족적 자존심만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고국에서의 기대는 대단했다.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누르고 이기기를 동포들은 바랬다. 어쩌면 억눌렸던 울분을 승리로 승화시키길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기필코 우승하고야 말 것으로 생각했던 마라톤의 참패는 동포들의 실망 아니 분노를 자아냈다. 떠날 때와 달리 돌아올 때는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다.

IOC 가입과 선수단 구성, 런던까지의 여정과 올림픽 기간 동안의 생활은 한편의 소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소설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빠진 내용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설이 64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1948년 런던올림픽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올림픽경기에 대한 집단주의와 다양성

이민표 (영원중학교 교사)

올림픽 시즌이 왔다. 개막을 앞두고 요즘 TV에는 ‘D-0일’ 이라는 자막이 항상 나오고 있다. 올림픽이 열릴 때면 우리나라 방송은 한국선수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따라다니며 하루종일 중계한다. 세 개 방송사가 똑같은 경기를 중계하는 날도 있다. 올해는 중편방송이 하나도 아닌 네 개나 가세할 테니 가히 올림픽 흥수를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은 올림픽에 역사하게 생겼다.

그런데 외국은 어떨까? 다른 나라도 우리 같이 온 국민이 올림픽 소식과 메달획득에 관심을 가질까. 방송은 하

루종일 중계를 하며 자국 선수가 메달을 따면 여러 차례 반복 방송할까?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1996년 여름에 유럽을 한 달간 여행한 적이 있다. 때마침 그 기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이 열리기 이틀 전인 7월 17일에 출국하여 올림픽이 다 끝난 8월 19일에 귀국했다. 그러다보니 당시 올림픽을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태도를 접할 수 있었다.

애틀란타 올림픽이 개막되던 7월 19일부터 필자는 런던에 있는 유스호스텔 로스하이트(Lothhite)에 묵었다. 우리 일행은 개막식 다음날인 7월 20일 저녁을 먹고 숙소 주변의 템즈 강변을 산책하다 큰 바(Bar)를 하나 발견했다. 그 마을에서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그 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안은 물론 밖에까지 수 십개의 테이블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바의 분위기는 올림픽과 별 관련이 없어 보였다. 작은 TV가 있기는 하나 꺼져 있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각자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많은 테이블 중 어떤 곳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당시 그 바의 전체 분위기는 올림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커다란 TV를 벽에 걸어놓고 방송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2002년 이후 술집 같은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본 유스호스텔의 TV에서도 올림픽을 찾기는 힘들었다. 개막식에 대한 뉴스가 잠깐 나오더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다. 채널을 돌려도 올림픽은 없었다. 영국에서 머문 기간이 비록 몇 일에 불과했으나 그들이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

이런 무관심은 이후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다. 영국을 떠나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쳐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올림픽이 끝났는데,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여행자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저녁에는 TV뉴스에서, 낮에는 길거리 가판대 신문에서라도 기사를 볼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안보였다. 올림픽이 끝나고 들어간 독일은 언제 올림픽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나라 같았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유럽이고 또 스포츠 중계나 방송시스템이 발달된 지역이니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필자는 당시 여행 기간 내내 올림픽 관련 경기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국했다. '빠떼루 아저씨'가 스타가 되었다는 걸 안 것은 귀국해서였다. 영국에서는 올림픽 중계를 한 방송사에서만 한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후에 유럽에서 살다온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니 유럽에서는 자국 선수가 메달을 따면 보도는 하지만, 우리같이 하루 종일 모든 방송사가 중계하는 일은 없단다. 다만 유럽인들은 축구에는 관심이 많아 월드컵이나 유로2012 같은 대회가 화제가 되기는 한단다. 자국 팀이 경기할 때는 우리의 2002년 보다는 적지만 바나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일도 있단다. 프랑스에서는 축구와 함께 두르 드 프랑스가 대단한 관심사이지만 올림픽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단다.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여행기간에 필자는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의 1996년 경험 및 유럽인이 올림픽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국민이 올림픽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런 대조적인 현상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차이를 넘어 우리의 생활태도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 두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차이점은 한국인들에게는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유럽인들에게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문화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알 수 없으나 그들과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유럽인들은 올림픽이 열려도 소 닭 보듯이 관심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자기 개인의 관심사에 몰두한다. 자국 팀의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응원하는 현상도 쉽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한국 팀의 경기에 대해서는 방장을 설치하면서까지 응원하고 열광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수백 만명이 길거리에 나와 응원을 했고, 그들은 이런 현상을 신기한 뉴스거리로 다루었다.

우리에게 이런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생긴 건 언제부터일까? 적어도 스포츠경기에 대한 집단응원문화가 생긴 건 수십 년 전부터라고 생각한다. TV가 가정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우리 국민들은 김일 선수가 일본 등 외국선수와 겨루는 레슬링 경기에 열광했고, 국가대표 축구팀인 '화랑'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경기하는 날이면 온 마을 주민이 TV앞에 모여 응원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문화였다. 요즘에는 그게 그 시절의 추억거리라는 광고까지 나온다. 이런 문화는 2002년에 절정을 이루었고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 현재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집단주의의 현상은 실제 스포츠 영역에만 나타나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여성들이 유행에 따라 비슷한 옷차림과 화장을 해서 서로 구분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 학생들에게도 유명상

표의 점퍼를 입는 것이 유행이다. 그것을 입어야 친구들에게 ‘따’ 당하지 않으며 심지어 옷값으로 서열도 정한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방송문화의 차이다. 유럽과 달리 한국의 방송사를 역시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이다. 우리 방송사들은 수십년간 올림픽 같은 행사를 열정적으로 중계해왔다. 시즌이 시작되면 3개 방송사가 정규방송을 정리(?)하고 경기장면 중계를 시작한다. 올림픽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방송에 불만인 시청자가 많고, ‘전파낭비’라는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공영방송으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해왔다. 광고 판매수익으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온 것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SBS가 단독중계 하게되었을 때 KBS와 MBC는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내세워 공동중계를 외쳤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했을 뿐 실제로는 광고에 걸린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것은 결국 이전과 똑같이 세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하는 꼴이 되어 방송의 집단적 획일화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이다. 국제적인 중계권 협상에서 한국은 불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도 방송사의 이러한 과도한 경쟁 때문 아닌가.

필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스포츠에 대해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갖게 된 것은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한국의 방송은 스포츠를 매개로 국민들에게 집단적이고 획일화된 응원문화를 조장해왔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한 행사에 빠지는 현상은 방송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스포츠와 결합된 방송에 의해 국민의 눈과 귀는 한곳에 쏠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집단적인 쏠림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때라고 본다. 질문해보자. “한 곳에 모여서 응원하는 행동이 진정 애국심에서 나온 것일까? 올림픽 중계로 중단된 ‘우한도전’을 보고 싶어 한다면 애국심이 없는 걸까?”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혹시 그가 나에게 운동 잘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줄까?” “올림픽 메달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더 잘 팔릴까? 삼성 휴대폰이 잘 팔리면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후원하는 삼성을 일본기업으로 아는 영국인이 많단다. 수십년간 올림픽에서 수많은 메달을 땀는데 아직도 삼성을 일본기업으로 알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메달을 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1986년 거대한 태풍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풍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유럽의 숲들이 파괴되었다. 그때 현장을 조사하러간 독일의 산림청 직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바람이 불자 다 자란 수백그루 나무가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네다섯 번 허리가 꺾인 나무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한꺼번에 심었기 때문에 똑같은 수종에 크기도 같아서 똑같이 바람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은 달랐다. 폭풍이 불자 수종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나무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흔들렸다. 어린 나무가 먼저 휘고, 다음엔 조금 더 큰 나무, 그러면서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에게 부딪쳤다. 서로를 상하게 할 것 같은 그 부딪침이 오히려 바람을 여러 방향으로 흩뜨리는 역할을 해 폭풍의 힘을 꺾어 버렸다.

자연 숲이 보여준 지혜는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연스럽다. 좁게는 한 가족 안에서도 각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이 자연스러운데 민족이나 국가는 어떨겠는가. 아무리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한 생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모두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집단주의적 문화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치 않는 우리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며, ‘우리’와 다른 집단을 차별하고, 심지어 ‘우리와 다르면 나쁘다’는 생각까지 하는 문화가 과연 건강한 문화인가에 대해 올림픽을 계기로 생각해보자.

메달을 위해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을 응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도 있으나 올림픽 경기 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으며 그들도 우리 국민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어쩌면 삶이 너무 힘들고 벅장 끝에 몰려 있어 응원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는 국민들도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그렇고, 삼성전자에 근무했다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그렇다. 남들은 TV 앞에 앉아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책상 앞에 앉아 평생 단 한 번도 씨먹을 일 없을 영어단어를 외워야 하는 학생들도 있다. 메달획득에 대한

열기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을 유지하는 문화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2012 런던올림픽 이 경기, 이 선수를 주목하자

장달영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팩스)

올림픽은 참가하여 경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말이다. 메달을 따느냐 못따느냐, 국가별 금메달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의 이슈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엘리트스포츠의 환경과 문화는 선수들이 동메달, 은메달을 따고도 억울하다거나 아쉬워서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지면상 제약으로 아래에 개인적 견해에 근거하여 이슈가 있는 몇 선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박태환'

박태환은 '순양(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올림픽 2연패(자유형 400)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을까? 2012년 세계 남자 자유형 400m 랭킹 1위인 '순양'과 2위인 '박태환'의 피할 수 없는 승부는 세계 수영계를 향한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오전 예선을 거쳐 저녁 결선이 벌어질 7월 28일(런던시간, 이하 같음)은 한국,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경기, 박태환과 순양의 남자 자유형 400m 레이스를 주목할 것이다. 경형까지 쌓은 '순양'의 기세가 무섭지만 박태환 개인으로서의 멋진 올림픽 피날레 장식을 기대한다.

2. 체조, 남자 도마, '양학선'

한국 체조의 올림픽 금메달의 한(恨)을 이번에는 풀 수 있을까? 8월 6일 오후 남자체조 개인종목 도마 경기에서 양학선이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개인종목 도마의 '트리플 크라운'(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2011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을 이루게 된다. 양학선 선수를 포함한 러시아·일본 선수 등의 톱랭커들은 경기 당일의 신체적, 심리적 컨디션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양학선이 올림픽 첫 출전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예선경기에서 자기 기량을 보인다면 결선경기에서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

3. 역도, 여자 +75kg급, '장미란'

한국역도의 희망, 장미란은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까?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라이벌 선수들의 거센 도전이 무섭다. 아니 기록상으로는 장미란이 도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8월 5일 오후, 용상 세계기록보유자인 장미란은 인상 세계기록보유자인 러시아의 '타티야나 카시리나'와 인상·용상 합계 세계기록보유자인 중국의 '주룽루'와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이다. 라이벌보다 나이가 많지만 경험과 노련미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4. 사이클(트랙), 남자 옴니엄, '조호성'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륜선수로서의 보장된 수입을 포기하고 다시 올림픽 무대에 오른 조호성,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육상의 10종 경기에 비유되며 이번 런던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된 옴니엄 종목에서 조호성이 메달을 목에 건다면 아시아 사이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며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유럽 사이클계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가능성은 있다. 조호성은 지난 월드컵 시리즈에서 두 번이나 옴니엄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8월 4, 5일 그의 힘찬 페달을 기대한다.

5.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정대성'

8월 5일 오후 이용대·정대성은 남자복식의 올림픽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를까? 이용대는 2연속 올림픽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할까? 현재 남자복식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대성 조는 세계랭킹 1위 중국 '카이윤·푸하이핑'조와 3위 덴마크 '마티아스 보에·카르스텐모겐센' 조와 쉽지 않은 승부를 벌여야 한다. 최근 오픈대회에서 세계랭킹 3위 덴마크조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여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을 기대해 본다. 한국 배드민턴은 올림픽 복식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리듬체조, 개인종합, '손연재'

과연 손연재의 성적은 어떠할까? 손연재에 대하여는 기량에 비해 언론 노출 및 마케팅의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녀의 이번 올림픽 성적에 관심이 많다. 사실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손연재가 이번에 메달을 따다면 이번이라고 할 수 있다. 결선 진출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결선에 진출한다면 한국 리듬체조의 새로운 역사가 된다. 손연재의 가능성과 함께 현재 세계 톱 랭커의 우아한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리듬체조 경기를 시청할 가치가 있다.

7. 근대5종, 남자개인, '황우진'

펜싱, 수영, 승마, 복합(사격, 크로스컨트리3km) 경기를 하루에 모두 치르는 근대5종은 참가선수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으로서 지금까지 러시아 등의 유럽선수가 무대를 휩쓸어왔다. 그런데 아시안인으로서 반란을 꿈꾸는 이가 있다. 황우진, 6월 현재 남자 세계랭킹 톱텐에서 유일한 아시안인으로 9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성장속도가 빨라 런던에서 큰일을 낼 가능성이 있다(런던올림픽에서는 황우진보다 랭킹에서 앞선 러시아선수 4명 중 2명은 출전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런던올림픽 랭킹 7위가 된다). 금메달은 어렵겠지만 다른 색깔의 메달은 기대해 볼 수 있다. 8월 11일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황우진의 파이팅을 기대해본다.

8. 유도, 남자 81kg급, 김재범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가장 유력시되는 선수 중의 한 명이 바로 김재범이다.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아깝게도 금메달을 놓쳤지만 이번에는 이번이 없는 한 금메달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2010, 2011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의 위업을 이룬 김재범의 적은 자만심 또는 부상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자신감일까? 예선부터 결선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줄 화려한 기술은 유도의 참맛을 보여줄 것이다. 7월31일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김재범의 모습 기대하시라.

9. 펜싱, 여자 플뢰레 남현희

한국 펜싱의 대표 검객 남현희(여자 플뢰레)의 멋진 칼솜씨의 결과는 어떨까? 지난 베이징올림픽 여자 플뢰레 개인 결승전에서 세계챔피언인 '발렌티나 베잘리'(이탈리아)에 아깝게 저 은메달에 그친 남현희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현재 세계랭킹 2위인 그녀는 위 베잘리 등 이탈리아 선수와 프랑스 선수 등 세계적 선수들과 7월 28일 마지막 올림픽무대에서 경합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10. 양궁, 남녀 개인전·단체전

온 국민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양궁 금메달, 선수들의 심적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7월 28일 남자단체전, 7월 29일 여자단체전, 8월 2일 여자개인전, 8월 3일 남자개인전의 결승전이 열린다. 대표선수 중의 대표 남자 임동현, 여자 기보배의 활약에 따라 메달 색깔이 결정되지 않을까? 금메달 4개면 가장 좋고, 3개면 좋고, 2개여도 좋고, 1개여도 좋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는 순간 그 이후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11. 남자 축구

남자 축구 홍명보호는 8강, 4강에 오를까? 와일드카드 남자 축구대표선수로 올림픽 출전이 예상되는 박주영은

동메달을 따 병역문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젓 먹던 힘까지 낼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야만 차기 월드컵 대표 자리를 노려 볼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중요하다. 협회 수장(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선 탈락한다면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뻔하다. 그런데 축구는 단체경기, 멕시코, 스위스, 가봉 예선에서 맞붙을 국가 모두 쉬운 상대방이 아니다. 예선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12. 여자핸드볼

여자 핸드볼의 제2의 우생순 스토리는 만들어질까? 국내 대기업이 연맹을 맡고 있고 전용경기장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바닥 수전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의 사랑인가? 실업팀의 해체, 재창단 등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여자 핸드볼,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생순 스토리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의 여자 핸드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상황이 서글프지만 우리 여자 핸드볼 선수들은 매 경기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행복한 여성체육을 위한 불온한 제언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불온(不穩)한 제언이라는 제목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길. 우리나라에서는 불온이라는 단어에 사상적인 삐딱함이 있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지만 본래의 뜻은 '평온함을 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disquieting,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크다 혹은 조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성체육인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 놓은 여성체육의 현재가 과연 충분히 만족스럽냐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좀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그동안 스포츠 참여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만약 계속 지금처럼 노력에 노력을 더해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스포츠 참여를 이루어 낸다면 과연 스포츠나 체육을 통해 여성들이 행복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여성체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물음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작정인데 그래서 제목을 불온하다고 붙여 보았습니다.

‘마이 무그따아이가 고마해라!’

기억나시지요? 광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에서 애송이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장동건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던 대사지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많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도 사석에서 제가 같은 편인 줄 알고 나직이 이야기를 건넨곤 합니다. 물론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평생 희생을 강요받고 살아야 했던 과거의 여성보다 오늘을 사는 여성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권신장을 통한 역차별로 인해 여성들로부터 자신이 누릴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분들의 만트라가 ‘마이 무그따아이가 고마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2011년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은 어떤가요? 과연 이제 여성의 권리신장에 대해 그만 해도 될 정도로 세상이 평평한지요?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 해 발표한 세계 성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부분에서 134 개국 중에 104위를 차지했습니다. 꽤 보수적인 나라로 알려진 일본이 94위였고 61위인 중국, 56위인 싱가포르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지요. 더구나 남녀간 급여차이(Gender Pay Gap)는 OECD국가 중 단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스포츠에서도 여성의 불평등 구조는 여전한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중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학생은 800만으로 1200만인 남학생보다 400만정도(약 34%) 적습니다(Sabo & Veliz, 2008). 더구나 도심에 사는 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80%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에 반해 여학생은 59%에 불과합니다(Sabo, 2008). 타이틀 IX 이후 미국에서의 여성스포츠 참여인구는 늘어났지만 여성체육 지도자와 여성 행

평가들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은 우리 여성체육계가 주의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성체육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여성체육에 대한 남성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여성의 스포츠참여는 애시 당초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과격한 신체운동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부터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추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896년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쿠베르탱이지요. 그는 1912년에 올림픽은 남성만을 위한 것이고 올림픽에서 여성의 역할은 승리한 남성을 위해 환호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까지 기를 쓰고 여성의 올림픽 참여를 끈질기게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흔히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중에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나 체격이 열등(inferior)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세계기록에는 현격한 남녀차이가 있으며 언제나 남성의 기록이 여성의 기록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지요. 이 주장에 대한 반론 두 가지. 먼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가장 큰 차이는 여성들의 체지방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오랜 지구력으로 승부하는 경기에서는 이 점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에게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1991년 영국의 엘리노어 애담스는 12시간 동안 83 마일 55야드를 달려 남자와 같이 경쟁한 혼성 울트라 달리기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베럴 버튼은 남녀 혼성 12시간 사이클 세계 기록을 2년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수영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을 추월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영국의 수영선수 엘리슨 스트리턴은 스코트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이르는 20마일 수영기록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50마일 수영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바하마에서 플로리다까지 무려 89마일 수영기록도 여성이 보유했습니다. 앤 새이어는 장거리 걷기 종목에서 415마일을 7일 3분 만에 주파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지요.

두 번째 반론은 여성의 기록이 항상속도가 남성보다 빠르다는 점과 남녀 기록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1908년 2시간 55분대였던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은 지난 9월 25일 케냐의 페트릭 마카우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세운 2시간 3분 38초로 단축됩니다. 백 년 동안 약 50여분 단축되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여자 마라톤 세계기록은 1918년 프랑스의 마리-루이스 레드로가 세운 5시간 40분대에서 2시간 15분 25초(2003년 기록)로 80 여년 만에 3시간 25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제 남녀 마라톤 세계기록차이는 11분 47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남성스포츠 따라잡기를 열심히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성들과 똑같이 현재의 스포츠를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여성들이 행복할까요? 얼마 전 판지총수 김여준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마치 자기가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성체육의 현재를 살펴보면서 혹시 여성계가 타자(남성이겠죠?)의 욕망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때때로 흥물스런 과몰이 되기도 하는데 승자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독식구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지상주의와 같은 병리적 요소들이 분명히 현대 스포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직, 현직 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이 대거 연루되었던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박탈과 같은 스포츠내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비근한 예가 되겠지요.

혹시 여성스포츠를 통해 뭔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라는 르카프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원영신과 정희준은 '더 아름답게'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스포츠를 이 가치에 부합되도록 재정립자는 신선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소수의 목소리로 묻히고 말았지만 자본과 경쟁으로 병들어 있는 현대 스포츠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 여성체육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에 미국의 여성체육계에서 그러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AIAW(Association for Intercollegiate Athletics for Women)이라는 단체지요. AIAW는 1971년에 결성된 미국여자대학체육연맹으로 80년대 초까지 대학 간 여자스포츠 경기(intermural sports)를 관장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타이틀 IX이 1972년에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미국의 여성스포츠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바람에 힘

입어 여성대학스포츠도 가야흐로 최대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타이틀 IX이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에서는 남자나 여자 모두 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로 인해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에서 여성스포츠에 투자하는 자금의 크기가 남성스포츠의 16%(50%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에 이르게 됩니다. 불과 1%였던 70년대 초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지요.

초창기 여성체육인들은 스포츠에서 경쟁이라는 부분을 배제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AIAW에도 이어져 그 당시 남자대학스포츠를 관장하던 NCAA와는 달리 대학간 경기에서 경쟁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초기 여성체육인들은 대학스포츠의 경쟁성과 상업화가 여성스포츠의 영혼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를 했고 여성스포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플레이 데이라는 형식을 고안합니다. 플레이 데이는 여러 학교를 대표하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모아서 학교 간 대항을 하지 않고 선수들을 섞어 네 가지 색깔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동료애를 느끼게 하고 스포츠 활동을 여성들 간의 단결과 우정을 공고이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지요. 경쟁과 적대감이 가득했던 스포츠 문화에 큰 의미가 있었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타이틀 IX으로 고무된 여성스포츠는 1973년 드디어 여자농구 토너먼트 결승전을 통해 여성스포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4000여 명이 운집한 퀸스대학과 이메쿨라타 대학 간의 여자농구 결승전에서 4500불이 넘는 이익을 남기는데 2년 후에는 판돈이 더 커지고 약 12,000명의 관중 앞에서 여자농구 결승전이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AIAW는 NCAA처럼 기업이나 매체로부터 스폰서를(물론 NCAA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받게 됩니다.

한 때 1000여 개의 회원학교를 거느리고 수익창출을 하면서도 여성스포츠만의 스포츠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AIAW는 바로 이 수익 때문에 70년대 말 남성대학스포츠연맹 NCAA의 주목을 받게 되고 급기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NCAA의 저돌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1981년 NCAA가 여자대학 챔피언경기를 제공하게 되면서 AIAW는 급격하게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치열한 법률공방 끝에 AIAW와 NCAA간의 합병에 대한 찬반투표가 1981년 이루어졌고 124-124 동점과 재개표, 재투표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37-117로 통과하게 됩니다. 1981-82 시즌에는 NCAA와 AIAW 모두 여자농구시합을 따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금력과 매체장악력에서 앞선 NCAA으로 상위 20위 대학 중 17 대학이 돌아서면서 AIAW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 30년이 지났고 여성대학스포츠는 남성스포츠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당시 여성체육인들이 꿈꾸던 안전한 스포츠 문화, 플레이 데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여성체육을 위한 제언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이언스를 변화시켜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사이언스와 스포츠. 둘 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초창기 여성체육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사이언스 분야에서 활약하던 여성과학자들은 수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05년 당시 하버드대학 총장이던 로렌스 쉐머즈는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과학과 수학분야에 최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이언스에서 그 공고했던 남성성이 무너지게 된 시발점은 사이언스의 근본을 지탱하고 있던 객관성(objectivity)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객관성이 과연 가능한지? 관계가 사라진 익명성의 사이언스에 어떻게 주관성(subjectivity)이 개입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가정들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고 주관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의 사이언스가 풍성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흔들기를 통해 사이언스는 다양성과 반박가능성을 담지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에서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남성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경쟁과 공격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객관성으로 무장된 사이언스에 주관성이라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경쟁과 적개심으로 무장된 스포츠에 협동(cooperation)과 보살핌(nurturing), 민감성(sensitivity)이라는 새로운(그러나 이미 시도되었던) 가치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이언스가 주관성을 통해 풍성해지고 인간화되었듯이 스포츠도 협동과 보살핌, 민감성을 통해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이언스와 스포츠의 비슷한 점은 진화과정 뿐만 아니라 진화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성성향은 결과적으로 사이언스를 분리시키고 스포츠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관찰자와 실험대상이 구분되고 연구보고서에서 작가가 분리되어져 왔지요. 사이언스의 여성성인 주관성은 이러한 분리

를 넘어 하나로 묶어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현재과학이 통섭과 융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선수들을 분리시키고 공격적으로 대립하게 하는 경쟁은 앞으로 여성체육이 전파해나갈 협동과 보살핌, 그리고 민감성을 통해 스포츠는 여성들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여성연대(sister solidarity)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로의 여성의 진출방식은 여성의 스포츠화(sportizing women) 일변도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와 여성의 결합방식은 스포츠의 여성화(womanizing sports)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여성체육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글은 2011. 11. 3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입니다.

강화의 윤리 - Against Excellence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나는 키가 작은 편이다. 대학교 다닐 때 최고 기록(?)이 169.7cm이었는데 작년에 서강대로 오면서 신체검사를 받아보니 그나마 168cm란다. 미국에 가 오래 살더니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쏠아 들었나 보다. 아무튼 최고기록을 근거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미팅에 나가면 줄곧 170cm라고 우겼다. 0.3cm 정도 반올림해서 170이라고 우기는데 도덕적 가책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내 아내는 키가 (여자치고는) 큰 편이다. 167인데(그래도 아직 1센티 내가 더 크다!) 우용을 해서 그런지 더 커 보인다. 같이 어딜 가면 아내가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톰크루즈와 니콜키드만 부부를 운운하면서 장신의 아내를 둔 남자가 더 멋있다고 우기면서도(참 못났다!) 속으로는 나도 부모 잘 만나 180센티를 넘었더라면 하고 애꿎은 부모님 탓을 하곤 했다(참고로 아버지는 나와 같은 168이다). 이 와중에 첫째 아들 순호가 쑥쑥 자라 주었다. 중1인 순호의 현재 스코어 나와 같은 168. 이대로 가면 아빠가 꿈꿔 오던 대망의 180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내는 자길 닮아 그렇다고 가끔 염장을 지르곤 하지만 자식이 아빠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된다는 현실(적어도 루저는 아니지 않은가?)에 그 유전적 형질이 어디서 왔건 간에 기분이 그리 나쁘진 않다.

기록지에 얽힌 녀두리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 키가 작다는 건 짝짓기를 할 때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이 못생겼거나 솟다리라서 뒤통이 저럼해 보이는 것도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부모 탓은 할 수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인 까닭이다. 그런데 만약에 거금을 들여 얼굴을 장동건이나 김태희처럼 완전 개조하던가 정강이뼈를 10cm늘리는 수술이 개발되어 신장과 뒤통을 보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일단 부작용은 전혀 없고 돈만 들이면 된다고 가정해 보자. 뼈를 깎는(이 경우에는 뼈를 늘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히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가?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경쟁으로 먹고사는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도덕과 비도덕을 넘나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스테로이드로 근육을 늘리고 적혈구의 비율이 높은 피를 수혈하고, 최근 몇몇 마라톤 선수들은 나이키에서 후원하는 하이테크 훈련을 한다. 조금씩 실내의 산소수를 줄여서 해발 3000 이상에 있는 트랙과 같은 조건을 만들고 유망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산소의 농도를 줄이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활동이 뻑세지고 이런 환경에서 장기간 훈련을 하면 몸이 적응을 해 마라톤의 경기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원리다. 최고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수혈을 통해 적혈구의 수를 늘리는 로우테크 강화에서 고가의 하이테크 강화로 진화해 간 것이다. 나는 나이키의 이 하이테크 강화훈련이 IOC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수혈이나 합성 EPO 주사(투석치료를 위해 개발된 방법인데 장거리 육상선수나 사이클 선수들이 애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를 통해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비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화방법으로의 접근성에 근거한 공정성은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누구나 일 년에 수만 불씩 드는 훈련을 오랜 시간동안 할 수 있지 않다는 말이다. 선택된 소수의 유망주들에게만 이런 강화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 지점에서 나는 그동안 스포츠심리학자로서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에 이르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떠들고 돌아다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대체로 이 비법의 수혜자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

는 부모를 만나 고급 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싹수가 있는 '뭉' 농들에게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주마~하며 접근해 최고수행을 담보로 그들에게 심리적인 강화를 해주었던 것이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그동안 심리적 강화를 미끼로 엑셀런트를 팔아 먹어온 비도덕적인(접근의 공정성 측면에서) 장사치였던 것이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다. 박태환이 그랬고 김연아가 그랬다. 그러나 아무나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박태환은 중3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고, 김연아는 14세에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다. 우씨~). 분명히 타고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다. 대단한 노력 없이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탄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노력한다고 그들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봉해 온 엑셀런트의 신화는 이런 점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다시 말해 심리적 강화는 심리 훈련을 통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심리적 강화를 한다고 다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가장 절실한 계층의 사람들(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사회부적응자)에게는 나이키의 하이테크 훈련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있는 농들의 돈잔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엑셀런스(Against Excellence)를 제안한다. 우리의 목표는 웰빙(well-being)이 아니라 웰버커밍(well-becoming)이 되어야 한다. 그게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내가 스포츠심리학자로서 걸어가려는 길이다.

마감이 훨씬 지난 이 글을 쓰기 위해 어둑어둑한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구두를 골라 신었는데 깔창이 없다.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구두에서 키높이 깔창을 빼서 장착한 후 집을 나섰다. 두둑한 키높이 깔창이 제공하는 2센티의 행복. 나는 오늘 170이다.

이 글은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뉴스레터 "돌려차기" 20호에 발표된 글입니다.

3. History

1) Wenlock Olympic (Wenlock Olympic)

런던올림픽 마스코트 Wenlock(웬록)은 영국 슈롭셔주의 시골마을 Wenlock에서 따온 이름이다. Wenlock을 런던올림픽 마스코트로 명명한 배경이 'Wenlock이 근대 올림픽의 시작'이라는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Wenlock은 1850년부터 고대 올림픽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소규모 스포츠종합대회인 Wenlock올림픽을 치르고 있다. 근대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는 쿠베르탱남작도 Wenlock올림픽에서 올림픽 부활의 영감을 얻었다고한다. 올림픽 부활의 영혼을 간직한 Wenlock의 역사를 알아본다.

아래는 근대올림픽 부활의 배경과 쿠베르탱남작의 역할, Wenlock올림픽의 기원에 관한 글이다.

올림픽의 시작 (始作)

권오상 전 한겨레신문 체육부장

출처 네이버캐스트

근대올림픽 탄생이 프랑스의 귀족 출신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남작의 독창적인 발상에서만 나온 것일까? 적어도 100년 이상 이런 믿음이 언론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리고 무엇보다 쿠베르탱 자신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돼왔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리기 전, 아테네에서 비록 국내대회이지만 올림픽이 3차례 열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영국에서도 역시 국내대회로 올림픽이 한

차례 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출범된 뒤에도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과 1908년 런던올림픽 사이인 1906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점도 향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대올림픽은 이렇듯 공식적인 출범 이전과 이후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문화였다. 로마제국의 통치에 들어간 뒤에도 올림픽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마침내 이교도의 문화로 배척돼 4세기경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곤 19세기말 부활됐다. 1500년이나 지난 이 고대의 스포츠를 과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부활시키려 했을까?

그리스에서 최초로 근대 올림픽의 꿈을 선언한 시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파나요티스 수초스(Panagiotis Soutsos, 1806~1868)다. 1832년은 그리스가 오랜 외압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발돋움한 해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의 지식인 계층은 이전엔 모두 국외로 추방됐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수초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파리와 파도바, 루마니아를 전전하던 그는 오토 1세가 그리스의 근대적 독립국가의 수도로 삼은 나폴리로 돌아왔다. 그리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르네상스도, 계몽주의시대도 거치지 못하고,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이나 제도, 정부의 조직까지 모든 것들이 영성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더선>이라는 신문사를 창간한 수초스 역시 다른 모든 그리스의 지식인들처럼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재현해 그리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1833년 그는 자신의 시에서 플라톤의 영혼을 빌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재현을 노래했다. 그리곤 1835년 이런 시상에 바탕을 둔 아이디어를 담은 고대올림픽의 부활을 국가에 제안했다. 1842년엔 오토 1세에게 청원하는 출판물을 냈고, 1845년엔 아테네의 수천 명의 대중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1856년까지, 23년이나 줄기차게 지속됐던 것이다.

최초의 근대올림픽 : 자파스올림픽

에방겔리스 자파스(Evangelis Zappas, 1800~1865)는 그리스 독립전쟁 참전용사이며, 박애주의자, 사업가였다. 생애 대부분을 루마니아에서 보낸 그는 동부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사람으로 성공했는데, 수초스가 주장해온 고대올림픽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접하고는 1856년 그리스 정부에 강력하게 이 내용을 탄원했다. 마침내 그리스는 1858년 아테네에서 최초의 근대올림픽을 1년 뒤인 1859년에 개최하기로 공식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가 부흥의 과제를 실현해야 했기에 농업올림픽과 산업올림픽을 함께 열기로 했다.

근대올림픽 출범을 위한 자파스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제1회 아테네올림픽이 열리기로 한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타전됐지만 세인에 많은 관심을 끌진 못했다. 하지만 영국 웬록(Wenlock)지방에 있는 W.P. 브룩스(Brookes) 박사에겐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였다. 이런 모든 소식들을 꼼꼼히 챙긴 그의 상세한 기록들은 근대올림픽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이다. 웬록에서 연례적으로 소박한 수준의 운동경기를 개최했던 브룩스 박사는 아테네에서 최초의 올림픽이 열리기 두 달 전인 1859년 7월에 열린 웬록 올림픽대회를 후원했다. 그는 또 아테네올림픽위원회에 대회 우승자에게 줄 10파운드의 은화를 상금으로 보냈는데, 당시 위원회는 자파스의 상금 외에 영국의 웬록올림픽위원회의 추가 상금도 있다고 발표했다.

자파스는 고대올림픽이 열렸던 파나시나이코스 경기장에서 올림픽을 열 수 있도록 막대한 발굴비용을 제공했지만, 1859년의 올림픽은 아테네 북쪽 지역에서 개최됐다. 1회 대회는 상금이 수여되기도 했지만 숙련된 선수들이 부족한데다, 종목도 매우 적어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브룩스 박사와 영국 올림픽운동

1860년대 브룩스 박사는 올림픽운동을 영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했고, 1859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자신이 보낸 웬록상을 수상한 그리스의 페트로 벨리사리오우를 웬록올림픽의 최초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며 그리스와 국제 교류를 진행시켰다. 이 명예회원 리스트의 맨 마지막 줄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등재됐는데, 이로부터 30년 뒤의 일이다. 어쨌든 웬록올림픽위원회와 그리스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하는 자매결연을 맺어 1860년대 올림픽 국제운동의 효시를 보여주었다.

이런 국제운동의 여파에 힘입어 마침내 1866년 영국 런던에서 국내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됐다. 하지만 당시 귀족 중심으로 꾸려진 아마추어운동클럽(Amateur Athletic Club)은 노동자나 기계공, 공예가들이 돈을 받고 뛰는, 브룩스가 추진하는 올림픽을 반대하며 대부분 참가하지 않았다.

오토 1세에 이어 1862년 왕위에 오른 덴마크 출신의 게오르게 1세는 1865년 세상을 떠나며 올림픽을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증한 자파스의 후원을 바탕으로 1870년 제2회 아테네올림픽을 개최했다. 3만 명이 경기를 관람했고, 1회 대회에 비해 많은 종목이 채택됐으며, 그리스 전국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크레타 섬에서 온 노동자 출신이 레슬링에서 우승했고, 아테네의 한 도축업자가 200m 달리기에서 1위를 하는 등 당시 참가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대학교수들이 차기 대회에서는 노동자계층은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5년 뒤에 열린 1875년 올림픽은 경기내용과 참가규모에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00년 자피온의 모습. 출처: Xenos2008 at en.wikipedia.org>

그리스올림픽위원회는 1888년 초 자피온(Zappeion) 올림픽 빌딩(2004년 아테네올림픽 미디어센터)을 준공한 뒤 가을에 1888년 올림픽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무런 대회 조직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올림픽위원회는 고대올림픽 부활의 꿈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스에서 올림픽 부활의 노력이 무산될 당시, 영국의 브룩스 박사는 아테네에서 국제올림픽대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는 런던에 있던 그리스 대사 존 게나디우스 설득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쿠베르탱 남작의 등장



<쿠베르탱남작 출처: Wikipedia>

이러는 사이 새롭게 올림픽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다. 그는 어릴 적 조국 프랑스가 프러시아군에 맥없이 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각지를 돌며 강인한

조국의 건설을 위한 체육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다, 마침내 스포츠교육의 내용이 잘 담긴 웨록의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결국 브룩스 박사와의 만남으로 인연이 이어졌다. 쿠베르탱은 자신의 연설에 브룩스 박사의 글들을 인용하기 시작했고, 브룩스 박사와의 서신교환을 통해 결국 1890년 웨록을 방문했다. 브룩스 박사는 근대올림픽 부활을 기리는 기념식수를 쿠베르탱에게 권했고, 자신의 올림픽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으며, 1859년 자파스올림픽의 우승자 리스트까지 보여주었다. 1866년 런던에서 열린 국가올림픽대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다.

근대올림픽 부활 움직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쿠베르탱은 1894년 파리에서 제1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최초의 근대올림픽 아테네 개최를 확정했다. 쿠베르탱은 또 당시 파리에 살고 있던 그리스 문인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Demetrios Vikelas)를 초대 IOC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비켈라스의 헌신적 노력과 당시 콘스탄티네(Constantine) 왕세자의 열성적인 지원, 부호 기오르고스 아베로프(Giorgos Averoff)의 경기장 신축 비용 후원 등에 힘입어 1896년 아테네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브룩스 박사는 대회가 열리기 석달 전 수초스와 자파스가 있는 저 세상으로 합류하면서 근대올림픽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볼 수는 없게 됐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올림픽은 수초스 시인의 최초의 제안, 자파스 부호의 재정적 지원, 문인 비켈라스의 가세, 그리고 무엇보다 콘스탄티네 왕세자의 지원 줄 모르는 성원 등이 숨겨져 있다. 나아가 그리스의 바깥 세상에서는 영국의 브룩스 박사가 처음으로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이상을 그리고 있었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 쿠베르탱과 구체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올림픽운동을 전개했다.

참고문헌: 방광일 역음, [아테네에서 아테네까지], (홍경, 2005); 허복, 오동섭, [올림픽 정치사], (보경문화사, 1985); 허복, [올림픽 경기사], (동양문화사, 1982); David Young, [From Olympia 776 BC to Athens], 2004; Christopher R. Hill, [Olympic Politics, Athens to Atlanta 1896~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올림픽 개최지 이야기

권오상 전 한겨레신문 체육부장
출 처 네이버캐스트

지구촌 스포츠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 1회 대회를 시작으로 116년의 역사를 거치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30회 대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대회까지 헤아리면 모두 31번의 개최지가 확정된 셈이다. 물론 하계 대회를 전제로 해서이다.

올림픽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달리, 개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최도시를 정한다. 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는 종합대회이다. 2016년 대회까지를 범위로 하면, 지금까지 18개국에서 대회가 열렸으며, 도시의 수는 이보다 6개가 많은 24개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개 도시 이상에서 개최된 경우가 있음을 뜻한다. 가령 4차례로 가장 많은 올림픽을 개최한 미국은 세인트루이스(1904년), 로스앤젤레스(1932년, 1984년), 애틀랜타(1996년) 3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독일(1936년 베를린, 1972년 뮌헨)과 호주(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가 있다.

반면 한 도시에서 두 번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도 있다. 올해 대회가 열리는 런던은 1908년, 1944년, 1948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4차례나 올림픽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2차 세계대전으로 개최가 무산된 1944년을 빼고도 가장 많은 3차례를 개최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다음으로는 그리스의 아테네(1896년, 2004년)와 프랑스 파리(1900년, 1924년)가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2016년 대회까지 18개 나라 24개 도시의 개최지가 결정됐다.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도전했던 나라는 이보다 꼭 두 배나 되는 36개국이며, 이 가운데 실패의 경험을 맞은 나라와 도시의 수는 29

개국 44개 도시에 이른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현장이 밝히고 있듯이 정치와 종교, 인종과 관계없이 열리는 평화의 제전이라고는 하지만, 정착 유지를 한 나라의 수는 물론이고, 도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큰 도시가 가져가는 '파워 게임'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올림픽 유치, 근대 국가 도시들의 각축장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최초 IOC의 모습 <출처:Wikipedia>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부활을 알리는 1896년 제1회 대회의 개최지는 근대올림픽 출범의 주도권을 쥔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개최도시는 아테네로 결정됐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국제행사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리스의 당시 카릴라오스 트리코우페스(Charilaos Tricoupes) 수상은 “올림픽에 대한 그리스 국민의 이해가 높지 않고, 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올림픽 대회의 그리스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쿠베르탱에게 보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야당이 올림픽을 찬성하는 국면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까지 닥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그리스의 약점을 간파한 헝가리가 부다페스트 개최를 제의하는가 하면, 스웨덴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테네가 결정된 데다, 아테네의 상징적 의미를 다른 도시들이 대신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리스는 초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그리스의 문인 비켈라스의 노력, 콘스탄티네 왕세자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스의 부호들의 참여 등으로 성공적인 1회 대회가 치러졌다.

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리스는 아테네가 올림픽 영구개최지가 되도록 노력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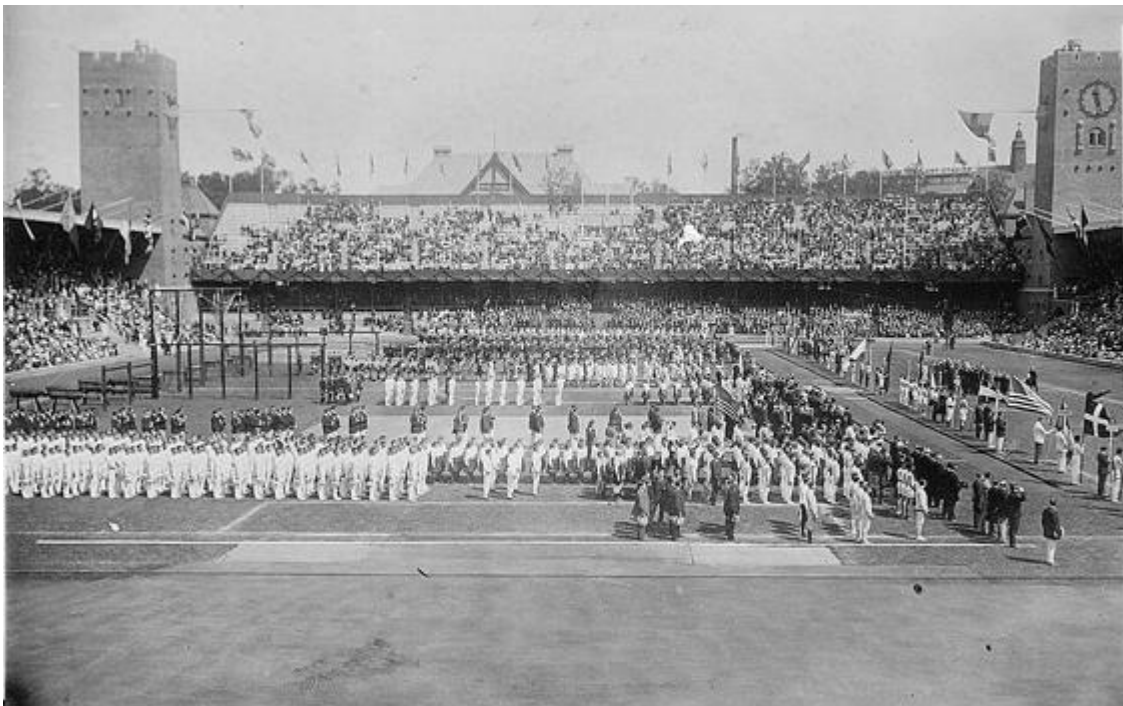
국제도시 순환 개최 원칙으로 좌절됐다.

초기 올림픽은 박람회 부속 행사

1900년 제2회 파리대회는 쿠베르탱의 의도처럼 20세기를 알리는 첫 대회를 조국에서 열려고 했던 대로 실행됐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독립된 국제대회가 되지 못한 올림픽은 파리 국제박람회의 부속 행사(쿠베르탱은 이를 “부끄러운 부속물”(Humiliated Vassal)이라고 표현)로 열리고 말았다.

근대올림픽이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출범 초기부터 멀리 떨어진 미국의 참여와 역할은 대단했다. 미국은 제1회 대회부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 IOC 창립위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윌리엄 슬로온(William P. Sloane) 교수에 이어 1900년 시오도르 스탠튼(Theodore Stanton)과 가스퍼 휘트니(Gaspar Whitney)가 IOC위원이 돼 21명의 IOC위원 가운데 미국인이 3명이나 됐다. 자연스레 제3회 올림픽은 미국에서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고, 1901년 5월22일 파리 제4차 총회에서 후보로 올라온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를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관계자가 불참한 세인트루이스를 제외시키고 시카고를 차기 개최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개최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세인트루이스는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 :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주를 사들인 것)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중인 만국박람회의 흥행을 위해 올림픽 유치는 더욱 절실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을 미국올림픽위원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해 3회 대회 개최지 변경을 IOC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결국 쿠베르탱 위원장은 개최지 변경을 묻는 문서를 발송해 21표 중 찬성 14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세인트루이스의 개최를 확정했다.

3회 대회 역시 7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파리대회와 마찬가지로 5개월에 걸쳐 진행됐는데 13개국 689명(여자 8명 포함)이 17개 종목, 94개의 세부종목에 참가했다. 규모가 작아진 데는 참가경비의 부담, 그 해 2월8일 극동지역 일본과 러시아의 해전에 따른 불안한 국제정세가 영향을 끼쳤다. 3회 대회에는 IOC위원장인 쿠베르탱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은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개최식 장면 <출처: Wikipedia>

최초의 개최지 변경, 최초의 단독 입후보

1908년 제4회 올림픽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제6차 총회는 1904년 6월 런던에서 열렸다. 후보지는 로마와 밀라노, 런던, 베를린 4개 도시였는데, 신흥강대국을 꿈꾸며 발칸반도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강대국 회의를 주관하려는 이탈리아가 개최권을 따냈다. 그러나 2년 뒤 1906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안전상의 이유와 피해복구 비용 등에 따른 예산문제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개최지 투표에서 2위를 한 런던이 차기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당시 영국은 1908년 런던에서 영국·프랑스박람회 준비 중이었는데, 박람회 축을 설득해 대회 개최승인을 받아내게 된다. 이 사건은 최초의 개최지 변경의 기록으로 남았다.

올림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독일은 런던과 스톡홀름대회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자 1912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런던처럼 화려한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1912년을 스톡홀름에 넘겨주고, 1916년 대회에 전념하기로 했다.

결국 1912년 스톡홀름대회는 스웨덴의 스톡홀름만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개최지가 선정됐다. 역대 올림픽 단독 입후보 사례는 동·하계를 합쳐 모두 6차례이다. 하계는 1896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1900년 파리, 1912년 스톡홀름, 1932년 로스앤젤레스, 1984년 로스앤젤레스까지 5차례, 동계는 1924년 제1회 대회인 샤모니 한 번뿐이다.

올림픽 유치 신청을 4년 연기한 독일의 개최지 선정은 당시 불안했던 유럽의 정세와 매우 밀접하다. 쿠베르탱을 비롯한 IOC위원들은 1912년부터 터졌던 발칸전쟁, 독일의 군국주의 증대로 인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 등으로 유럽의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자, 베를린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하면 유럽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근대 올림픽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유치 후보도시들이 1916년 제6회 대회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베를린(독일)을 비롯해 알렉산드리아(이집트),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브뤼셀(벨기에), 부다페스트(헝가리), 클리블랜드(미국)까지 6개 도시였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도시였던 부다페스트가 유치 철회를 밝히면서 만장일치로 베를린이 차기 개최지로 확정됐다.

최초의 올림픽 무산 ‘베를린대회’

1914년 6월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Franz Ferdinand)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자객에 의해 암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4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베를린올림픽은 사상 처음 대회가 취소되는 기록을 남겼다. 알렉산드리아와 부다페스트가 시도한 1916년의 동계올림픽 개최 노력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무산됐다. 베를린은 전쟁으로 기회를 잃은 올림픽개최를 20년 뒤에 다시 이루게 된다. 193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1936년 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쿠베르탱은 1919년 3월, 5년 만에 스위스 로잔에서 IOC총회를 소집해 제7회 대회 개최지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1915년 쿠베르탱은 IOC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본부를 파리에서 중립국인 스위스 로잔으로 옮겼다. 당시 안트워프(벨기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애틀랜타·클리블랜드·필라델피아(이상 미국), 부다페스트(헝가리), 아바나(쿠바), 리옹(프랑스)까지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6개국 9개 도시가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화의 후유증에 사달리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평화의 제전을 여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공감을 얻어 유럽의 중심지인 안트워프가 개최지로 결정됐다.



최초 동시 2개 개최지 결정

1920년 안트워프 올림픽 포스터 <출처: Wikipedia>

네덜란드는 1912년 타월 더 세로스케르켄(Tuyl de Serooskerken) IOC위원이 처음 암스테르담 유치를 제의했고, 1919년 유치전에 나섰다가 안트워프가 유력해지자 1924년 8회 대회 유치를 조건으로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8회 대회, 그러니까 1924년에 열리는 대회는 올림픽 부활을 알리는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세기를 알리는 1900년 파리에서 제2회 올림픽을 개최한 쿠베르탱은 당시 박람회의 결가지 행사에 불과했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8회 대회 파리 개최를 설명하는 서한을 IOC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세로스케르켄도 이런 뜻에 동조하는 대신, 1928년 9회 대회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1921년 6월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9차 총회는 8회와 9회 대회 개최지로 파리과 암스테르담 2곳을 확정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거대한 영토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던 미국은 1904년 3회 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1916년 6회 대회에 클리블랜드가, 1920년 7회 대회엔 클리블랜드를 비롯한 3개 도시가 잇따라 유치 도전장을 내밀며 올림픽 무대 전면에 등장하고자 했다. 이런 미국 올림픽 유치운동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빼놓을 수 없다. 1924년과 1928년 두 대회 연속 유치전에 나선 로스앤젤레스는 쿠베르탱의 파리에 개최 대한 열망,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로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마침내 1923년 로마 총회에서 결실을 맺는데, 암스테르담이 7년 전 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것보다 2년이 더 이른 9년 전에 1932년 제10회 대회 개최권을 확보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 유치에는 미국 서부해안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번 윌리엄 메이 갈랜드(William May Garland)가 앞장섰는데, 1922년 IOC위원으로 선임된 뒤 이듬해 개최권을 따내는 활동을 펼쳤다.

전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올림픽 무산

1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올림픽대회의 첫 무산 사태를 빚은 독일은 올림픽 참가 자체에 대한 제재를 받았지만 1928년 족쇄가 풀리자마자 국위선양과 스포츠계의 국제지위 확보를 위해 올림픽 유치 운동에 뛰어들었다. 유치에 앞장 선 사람은 바로 독일올림픽위원회의 테오도르 레발트(Dr. Theodor Lewald) 박사와 스포츠역사가인 칼 디엠(Carl Diem)이었다.

1936년 11회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총회가 1931년 4월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소집됐지만 스페인 공화국 정부의 출현에 따른 정정 불안으로 67명의 IOC위원 중 19명만 참석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IOC는 위원들에게 후보도시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편 투표를 실시한 결과 베를린이 48표를 얻어, 바르셀로나(16표)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했다. 베를린 유치 당시의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지만 미국 대공황의 여파에 따른 독일 경제의 악화 등의 어수선한 정국 속에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당이 정권을 잡았다. 베를린올림픽은 정치적으로 가장 악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된다.

1940년 제12회 대회의 개최지 결정은 1936년 7월31일 베를린 IOC총회에서 이뤄졌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유치에 나서 12회 개최권을 따냈지만, 1938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여파로 일본은 그 해 7월15일 도쿄 올림픽대회
의 개최 불가를 선언했다. 일본은 1938년 2월 이집트 총회에서 확정된 삿포로의 1940년 5회 동계대회도 함께 취
소를 결정했다. 다급해진 IOC는 도쿄 대신 핀란드의 헬싱키를 개최지로 선정했지만,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12회 올림픽은 두 번째로 무산되고 만다.

1939년 6월 런던 IOC총회는 로마, 디트로이트, 로잔의 경쟁을 따돌린 런던을 1944년 13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
했다. 그러나 그해 9월1일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9월3일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뒤 1945년 5월7일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돼 1944년 런던대회는 역사
적으로 세 번째 무산되는 대회로 남게 됐다.

2차 대전 이후 처음 열린 1948년 14회 대회는 승전국들의 올림픽 유치전이었다. 1945년 8월21일부터 나흘간 런
던에서 열린 IOC집행위원회에 상정된 후보도시는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미니애폴리스 등 미국의 4
개 도시, 스위스 로잔과 영국 런던까지 모두 6개 도시였지만, 투표 결과 1944년에 대회가 무산됐던 런던으로 결정
됐다. 이 대회는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대회 참가가 거부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참가한 대회이기도 하다.

최초의 남반구 올림픽 멜버른대회

1947년 스웨덴 스톡홀름 IOC총회에서는 핀란드의 헬싱키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디트로
이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점진 끝에 1952년 15회 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인구 400만 명에 불과한 핀란드 국민의 오랜 영원이 실현됐으며, 인구 40만 명이라는 역대 가장 작은 개최도시였
지만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됐다.



최초의 남반구 올림픽 멜버른 대회 당시 올림픽 게임을 그린 건물 외관 모습 <출처: Wikipedia>

1956년의 16회 대회는 역사상 처음 남반구의 올림픽 개최가 화두였다. 1949년 로마 총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멜버른, 미니애폴리스,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4개국 9도시
를 놓고 투표를 벌였다. 멜버른과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로 좁혀진 대결에서 멜버른이 21 대 20, 1표 차로 이겨

사상 첫 남반구 개최도시가 됐다. 하지만 호주는 승마경기를 위한 말을 반입하려면 6개월의 검역기간이 필요하다는 세관상의 규제로 인해 승마대회 개최는 불가능했다. 결국 대회를 1년 앞둔 1954년 5월 아테네 총회는 승마경기에 대해 스웨덴 스톡홀름 개최를 결정해, 올림픽 사상 처음 두 나라에서 경기가 분산 개최되는 사례가 됐다.

1960년 17회 로마대회는 1955년 6월 프랑스 파리 IOC총회에서 결정됐다. 브뤼셀, 부다페스트, 디트로이트, 로잔, 멕시코시티, 로마, 도쿄가 후보로 나섰고, 결선투표에서 로마가 로잔을 35 대 24로 제치고 개최권을 가져갔다. AD 393년, 테오도시우스 1세 로마 황제가 올림픽을 이교도들의 축제라는 이유로 폐지를 한 뒤 1600여 년 만에 로마에서 올림픽이 부활된 역사적인 대회였고, 레슬링 등 일부 종목은 고대 유적지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아시아 최초의 도쿄 대회

2차 대전 전범국으로 국제스포츠계의 제재를 받은 일본은 1951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IOC총회에서 일본올림픽위원회(JOC)의 가입을 승인 받고, 1952년 헬싱키대회에 참가하며 국제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1955년 6월 파리 총회에서 1960년 17회 대회 유치에 도전했다가 낙방하자, 1964년 18회 대회에 재도전하게 된다. 1958년 5월 24일부터 열릴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도쿄 유치를 확정한 일본은 IOC총회도 그 해 유치해 아시아대회 운영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전략을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1959년 5월 23일 서독 뮌헨 IOC총회는 브뤼셀, 디트로이트, 비엔나를 물리친 도쿄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1968년 해발 2300m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19회 올림픽은 최초의 고지대 대회였다. IOC는 이 때문에 현지 합숙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렸고, 고지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의 제임스 하인즈(James Hines)가 100m에서 최초의 10초벽을 깨는 등 세계기록이 양산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디트로이트를 제치고 1972년 20회 대회를 유치한 서독의 뮌헨대회는 팔레스타인 '검은 구월단'(Black September)의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촌 테러로 인해 피로 물든 스포츠축제의 비극으로 남았다. 1966년 로마 총회에서 20회 대회 유치전에 실패한 몬트리올은 1976년 21회 대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1970년 암스테르담 총회에서는 1차 투표 결과 모스크바, 몬트리올, 로스앤젤레스가 과반득표 없이 1~3위를 기록하자 상위 두 도시인 모스크바와 몬트리올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몬트리올이 역전승을 거뒀다. 몬트리올 대회는 대회 개최 직전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아 대회 경비가 1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악의 적자대회를 면치 못했다.

12년 만의 동서 올림픽 서울대회

1980년대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해 반쪽 대회로 전락했다. 동서냉전의 기운이 올림픽에 드리운 것이었다.

1952년 헬싱키대회에 처음 국제무대에 등장한 소련은 1976년 몬트리올대회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경기력을 과시했다. 이런 경기력에도 수준급의 국내 스포츠시설을 등에 업은 소련은 1974년 2월 23일 비엔나 총회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제치고 1980년 22회 대회를 유치했다. 하지만 소련은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에 1980년 1월 9일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미 카터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미국올림픽위원회는 그 해 4월 13일 미국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보이콧을 결정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국 이상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역사상 5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 단독 유치전에 나선 로스앤젤레스는 1978년 5월 아테네 총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1984년 23회 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대회를 불과 1년여 앞둔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상공에서 격추돼 269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며 동서냉전의 기운은 더 강해져 올림픽 대회의 분위기는 어두워졌다. 결국 1984년 3월 미국 국무성이 소련의 올림픽 외교관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는 소련을 비롯한 일부 동구권 국가들이 불참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대회를 거치며 소련과 미국의 냉전구도로 전개된 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두 나라가 모두 참가해 12년 만에 '동서올림픽'이 구현됐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쿠바와 니카라과 등 일부

국가들이 불참한 흔적이 남아 있다.

1988년 20회 올림픽 유치전은 사실 일본이 먼저 뛰어 들었다. 일본 나고야는 1977년 대회 유치를 선언했다. 한국은 1978년 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서울 태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종규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1979년 2월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뒤 올림픽 운동에 나섰다. 정권의 실세였던 그는 그해 10월8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울의 올림픽 유치를 공식발표했으며, 현대 정주영 회장 등의 지원을 업고 유치전에 나선 결과, 1981년 9월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52 대 27로 나고야를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다.

올림픽 100주년 애틀랜타대회

로스앤젤레스대회가 민간 자본유치로 2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자, 올림픽의 상업적 성공을 노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영국의 버밍햄,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브리즈번 등 6개 도시가 1992년 25회 대회 유치전에 나섰다. 1986년 10월 스위스 로잔 총회는 3차 표결 끝에 바르셀로나를 개최지로 선정했는데, 당시 올림픽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가 조국의 대회 개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1931년 4월25일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베를린과 올림픽 유치전을 벌인지 51년 만에 올림픽 개최권 획득하게 됐다.

1996년은 근대올림픽 100주년을 맞는 해였다. 1회 대회 개최지 아테네의 야심찬 도전은 1990년 9월 도쿄 총회에서 4차까지 가는 투표전으로 전개됐다. 아테네는 1~2차까지 득표 1위를 달렸지만 과반에 미달해 들어간 3차 투표에서 동점을 이룬 뒤 4차에서 애틀랜타에 35 대 51로 패했다. 아테네는 7년 뒤인 1997년 9월5일 로잔 총회에서 사상 최다인 11개 도시가 유치전에 나선 2004년 28회 대회 개최권을 획득하게 된다. 11개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자 IOC는 유치평가단을 가동해 최종 5개의 후보도시를 압축했고, 1차 투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케이프타운이 나란히 16표의 가장 적은 득표를 기록하자, 두 도시 중 한 도시를 탈락해야 하는 투표까지 벌여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탈락했다. 아테네는 로마와 벌인 최종 5차 투표에서 66 대 41로 108년 만에 올림픽을 아테네로 가져오게 됐다. 이에 앞서 새천년 첫 올림픽인 2000년 27회 대회는 호주 시드니가 3차 투표까지 득표 1위를 달리던 베이징을 제치고 4차 투표에서 역전극을 펼쳐 개최지가 됐다.

중국의 베이징은 일본 오사카,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를 따돌리고 2008년 29회 대회를, 영국 런던은 스페인 마드리드,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의 뉴욕, 프랑스 파리를 제치고 올해 30회 올림픽을 유치했다.

2009년 10월2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121차 IOC총회에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미국 시카고와 스페인의 마드리드, 일본 도쿄의 경쟁을 물리친 끝에 남미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열었다. 2020년 32회 올림픽은 현재 터키 이스탄불, 일본 도쿄, 이탈리아 로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카타르 도하, 스페인 마드리드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 9월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125차 총회에서 투표로 정해진다.

참고문헌: 방광일 역음, [아테네에서 아테네까지], (홍경, 2005); 오동섭, [올림픽 정치사], (보경문화사, 1985); 허복, [올림픽경기사], (동양문화사, 1982); David Young, [From Olympia 776 BC to Athens], 2004 ; Christopher R. Hill, [Olympic Politics, Athens to Atlanta 1896~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4. Information

1) 런던올림픽

- 개요

기 간	7. 28 ~ 8. 13 (한국시간)					
종 목	26개 종목 302개 세부종목 (세부종목 첨부)					
참가국	203개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43개국	49개국	53개국	2개국	39개국	17개국
참가선수	10,500명					
주경기장	<p style="text-align: center;"><올림픽 스타디움 (Olympic Stadium)></p>  <p>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스타디움은 친환경이 강조된 경기장이다.</p> <p>올림픽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올림픽파크가 조성된 런던 북동부 외곽지역은 원래 산업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약 200만톤의 흙이 정화됐고 4,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주경기장을 짓기 위해 사용한 강철은 런던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검류와 도시 재개발로 발생한 건축 폐기물 재활용품이다. 올림픽 스타디움의 좌석은 총 80,000석. 자원 재활용과 유지비 감소를 위해 폐가스관으로 만든 5,500석은 올림픽이 끝난 뒤 철거될 예정이다.</p>					
경기장수	27개					
슬로건	Live As One (하나의 삶)					
모토	Inspire a generation (세대에게 영감을)					

- 마스코트



이름 **웬록 (Wenlock)**

유래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잉글랜드의 시골 마을인 ‘머치 웬록’에서 유래

상징 머리 - 올림픽 스타디움 지붕 눈 - 올림픽 기록, 카메라 렌즈
 손 -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색 팔찌

- 세부종목 (가나다순)

- * 총 302개 세부종목
- * 수영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에서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는 별도표기
- * 배구(배구, 비치발리볼)에서 비치발리볼은 별도 표기

① 근대 5종 (Modern Pentath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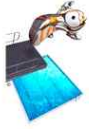
남자 (1)	여자 (1)
근대5종 (Individual competition)	근대5종 (Individual competition)

② 농구 (Basketball)



남자 (1)	여자 (1)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③ 다이빙 (Diving)



남자 (4)	여자 (4)
3m 스프링보드 (3m Springboard)	3m 스프링보드 (3m Springboard)
10m 플랫폼 (10m Platform)	10m 플랫폼 (10m Platform)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 (Synchronised 3m Springboard)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 (Synchronised 3m Springboard)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 (Synchronised 10m Platform)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 (Synchronised 10m Platform)

④ 레슬링 (Wrestling)



남자 (14)		여자 (4)
자유형 (Freestyle)	그레코로만형 (Greco-Roman)	자유형 (Freestyle)
55kg급 (Up to 55kg)	55kg급 (Up to 55kg)	48kg급 (Up to 48kg)
60kg급 (From 55 to 60kg)	60kg급 (From 55 to 60kg)	55kg급 (From 48 to 55kg)
66kg급 (From 60 to 66kg)	66kg급 (From 60 to 66kg)	63kg급 (From 55 to 63kg)
74kg급 (From 66 to 74kg)	74kg급 (From 66 to 74kg)	72kg급 (From 63 to 72kg)
84kg급 (From 74 to 84kg)	84kg급 (From 74 to 84kg)	-
96kg급 (From 84 to 96kg)	96kg급 (From 84 to 96kg)	-
120kg급 (From 96 to 120kg)	120kg급 (From 96 to 120kg)	-

⑤ 배구 (Volleyball)



남자 (1)	여자 (1)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⑥ 배드민턴 (Badminton)



남자 (2)	여자 (2)	혼합 (1)
단식 (Singles)	단식 (Singles)	혼합 복식 (Doubles)
복식 (Doubles)	복식 (Doubles)	-

⑦ 복싱 (Boxing)



남자 (10)	여자 (3)
라이트 플라이급 (Light Fly Weight 46~49kg)	플라이급 (Fly Weight 48~51kg)
플라이급 (Fly Weight 49~52kg)	라이트급 (Light Weight 57~60kg)
밴텀급 (Bantam Weight 52~56kg)	미들급 (Middle Weight 69~75kg)
라이트급 (Light Weight 56~60kg)	-
라이트웰터급 (Light Welter Weight 60~64kg)	-
웰터급 (Welter Weight 64~69kg)	-
미들급 (Middle Weight 69~75kg)	-
라이트헤비급 (Light Heavy Weight 75~81kg)	-

헤비급 (Heavy Weight 81~91kg)	-
슈퍼헤비급 (Super Heavy Weight +91kg)	-

⑧ 비치발리볼 (Beach Volleyball)



남자 (1)	여자 (1)
24팀 토너먼트 (24-team tournament)	24팀 토너먼트 (24-team tournament)

⑨ 사격 (Shooting)



남자 (9)	여자 (6)
50m 소총 복사 (50m Rifle Prone (60 shots prone))	50m 소총 3자세 (50m Rifle 3 Positions (3x20 shots))
50m 소총 3자세 (50m Rifle 3 Positions (3x40 shots standing, kneeling, prone))	10m 공기 소총 (10m Air Rifle (40 shots standing))
10m 공기 소총 (10m Air Rifle (60 shots standing))	25m 권총 (25m Pistol (30+30 shots standing))
50m 권총 (50m Pistol (60 shots standing))	10m 공기 권총 (10m Air Pistol (40 shots))
25m 속사 권총 (25m Rapid Fire Pistol (60 shots standing))	트랩 (Trap (75 targets))
10m 공기 권총 (10m Air Pistol (60 shots standing))	스킵트 (Skeet (75 targets))
트랩 (Trap (125 targets))	-
더블트랩 (Double Trap (150 targets))	-
스킵트 (Skeet (125 targets))	-

⑩ 사이클 (Cycling)



	남자 (9)	여자 (9)
BMX (BMX)	BMX (BMX Racing)	BMX (BMX Racing)
산악자전거 (Mountain Bike)	크로스컨트리 (Cross-country)	크로스컨트리 (Cross-country)
도로 경기 (Road Cycling)	개인 도로 (단체 출발) (Road Race (mass start))	개인 도로 (단체 출발) (Road Race (mass start))
	도로 독주 (Time Trial)	도로 독주 (Time Trial)
	단체 스프린트 (Team Sprint)	단체 스프린트 (Team Sprint)
트랙 경기 (Track Cycling)	스프린트 (Sprint)	스프린트 (Sprint)
	경륜 (Keirin)	경륜 (Keirin)
	단체 추발 (Team Pursuit)	단체 추발 (Team Pursuit)
	옴니엄 (Omnium)	옴니엄 (Omnium)

⑪ 수구 (Water Polo)



남자 (1)	여자 (1)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8팀 토너먼트 (8-team tournament)

⑫ 수영 (Swimming)



남자 (17)	여자 (17)
50m 자유형 (50m Freestyle)	50m 자유형 (50m Freestyle)
100m 자유형 (100m Freestyle)	100m 자유형 (100m Freestyle)

200m 자유형 (200m Freestyle)	200m 자유형 (200m Freestyle)
400m 자유형 (400m Freestyle)	400m 자유형 (400m Freestyle)
1500m 자유형 (1500m Freestyle)	800m 자유형 (800m Freestyle)
100m 배영 (100m Backstroke)	100m 배영 (100m Backstroke)
200m 배영 (200m Backstroke)	200m 배영 (200m Backstroke)
100m 평영 (100m Breaststroke)	100m 평영 (100m Breaststroke)
200m 평영 (200m Breaststroke)	200m 평영 (200m Breaststroke)
100m 접영 (100m Butterfly)	100m 접영 (100m Butterfly)
200m 접영 (200m Butterfly)	200m 접영 (200m Butterfly)
200m 개인 혼영 (200m Individual Medley)	200m 개인 혼영 (200m Individual Medley)
400m 개인 혼영 (400m Individual Medley)	400m 개인 혼영 (400m Individual Medley)
400m 계영 (4 x 100m Freestyle Relay)	400m 계영 (4 x 100m Freestyle Relay)
800m 계영 (4 x 200m Freestyle Relay)	800m 계영 (4 x 200m Freestyle Relay)
400m 혼계영 (4 x 100m Medley Relay)	400m 혼계영 (4 x 100m Medley Relay)
10km 마라톤 수영 (10km Marathon Swimming)	10km 마라톤 수영 (10km Marathon Swimming)

⑬ 승마



구분	메달수 (6)
마장마술 (Dressage)	단체 마장마술 (Team)
	개인 마장마술 (Individual)
종합마술 (Eventing)	단체 종합마술 (Team)
	개인 종합마술 (Individual)
장애물 (Jumping)	단체 장애물 (Team)
	개인 장애물 (Individual)

⑭ 싱크로나이즈 (Synchronised Swimming)



여자 (2)
듀엣 (Duets)
단체 (Teams)

⑮ 양궁 (Archery)



남자 (2)	여자 (2)
개인전 (Individual)	개인전 (Individual)
단체전 (Team)	단체전 (Team)

⑯ 역도 (Weightlifting)



남자 (8)	여자 (7)
56kg급 (56kg)	48kg급 (48kg)
62kg급 (62kg)	53kg급 (53kg)
69kg급 (69kg)	58kg급 (58kg)
77kg급 (77kg)	63kg급 (63kg)
85kg급 (85kg)	69kg급 (69kg)
94kg급 (94kg)	75kg급 (75kg)
105kg급 (105kg)	75kg 이상급 (+75kg)
105kg 이상급 (+105kg)	-

⑰ 요트 (Sailing)



남자 (6)	여자 (4)
RSX급 (RS:X – Men’s Windsurfer)	RSX급 (RS:X – Women’s Windsurfer)
레이저급 (Laser – Men’s One Person Dinghy)	레이저급 (Laser Radial – Women’s One Person Dinghy)
핀급 (Finn – Men’s One Person Dinghy (Heavyweight))	470급 (470 – Women’s Two Person Dinghy)
470급 (470 – Men’s Two Person Dinghy)	엘리엇 6m급 (Elliott 6m – Women’s Match Racing)
49er급 (49er – Men’s Skiff)	-
스타급 (Star – Men’s Keelboat)	-

⑱ 유도 (Judo)



남자 (7)	여자 (7)
60kg급 (Extra Lightweight up to and including 60kg)	48kg급 (Extra Lightweight up to and including 48kg)
66kg급 (Half-Lightweight over 60kg up to and including 66kg)	52kg급 (Half-Lightweight over 48kg up to and including 52kg)
73kg급 (Lightweight over 66kg up to and including 73kg)	57kg급 (Lightweight over 52kg up to and including 57kg)
81kg급 (Half-Middleweight over 73kg up to and including 81kg)	63kg급 (Half-Middleweight over 57kg up to and including 63kg)
90kg급 (Middleweight over 81kg up to and including 90kg)	70kg급 (Middleweight over 63kg up to and including 70kg)
100kg급 (Half-Heavyweight over 90kg up to and including 100kg)	78kg급 (Half-Heavyweight over 70kg up to and including 78kg)

100kg 이상급 (Heavyweight over 100kg)	78kg 이상급 (Heavyweight over 78kg)
---------------------------------------	-------------------------------------

⑩ 육상 (Athletics)



구분	남자 (24)	여자 (23)
트랙 경기 (Track)	100m (100m)	100m (100m)
	200m (200m)	200m (200m)
	400m (400m)	400m (400m)
	800m (800m)	800m (800m)
	1500m (1500m)	1500m (1500m)
	5000m (5000m)	5000m (5000m)
	10,000m (10,000m)	10,000m (10,000m)
	110m 허들 (110m Hurdles)	110m 허들 (110m Hurdles)
	400m 허들 (400m Hurdles)	400m 허들 (400m Hurdles)
	3000m 장애물 (3000m Steeplechase)	3000m 장애물 (3000m Steeplechase)
	400m 계주 (4 x 100m Relay)	400m 계주 (4 x 100m Relay)
	1600m 계주 (4 x 400m Relay)	1600m 계주 (4 x 400m Relay)
필드 경기 (Field)	높이뛰기 (High Jump)	높이뛰기 (High Jump)
	장대높이뛰기 (Pole Vault)	장대높이뛰기 (Pole Vault)
	멀리뛰기 (Long Jump)	멀리뛰기 (Long Jump)
	세단뛰기 (Triple Jump)	세단뛰기 (Triple Jump)
	원반던지기 (Discus Throw)	원반던지기 (Discus Throw)
	해머던지기 (Hammer Throw)	해머던지기 (Hammer Throw)
	창던지기 (Javelin Throw)	창던지기 (Javelin Throw)
	포환던지기 (Shot Put)	포환던지기 (Shot Put)

혼성경기 (Combined events)	10종경기 (Decathlon)	7종경기 (Heptathlon)
로드 레이스 (Road)	마라톤 (Marathon)	마라톤 (Marathon)
	20km 경보 (20km Race Walk)	20km 경보 (20km Race Walk)
	50km 경보 (50km Race Walk)	-

㉔ 조정 (Rowing)



남자 (8)	여자 (6)
싱글스컬 (Single Sculls (M1x))	싱글스컬 (Single Sculls (W1x))
무타페어 (Pair (M2-))	무타페어 (Pair (W2-))
더블스컬 (Double Sculls (M2x))	더블스컬 (Double Sculls (W2x))
더블스컬 라이트급 (Lightweight Double Sculls (LM2x))	더블스컬 라이트급 (Lightweight Double Sculls (LW2x))
무타포어 (Four (M4-))	쿼터러플스컬 (Quadruple Sculls (W4x))
무타포어 라이트급 (Lightweight Four (LM4-))	에이트 (Eight (W8+))
쿼터러플스컬 (Quadruple Sculls (M4x))	-
에이트 (Eight (M8+))	-

㉕ 체조 (Gymnastics)



구분	남자 (9)	여자 (9)
----	--------	--------

기계 체조 (Artistic Gymnastics)	기계 종합 단체전 (Team)	기계 종합 단체전 (Team)
	기계 종합 개인전 (Individual All-Around)	기계 종합 개인전 (Individual All-Around)
	마루 (Floor Exercise)	마루 (Floor Exercise)
	안마 (Pommel Horse)	이단평행봉 (Uneven Bars)
	링 (Rings)	평균대 (Beam)
	도마 (Vault)	마루 (Floor Exercise)
	평행봉 (Parallel Bars)	-
	철봉 (Horizontal Bar)	-
리듬 체조 (Rhythmic Gymnastics)	-	리듬 종합 개인전 (Individual All-Around)
		리듬 종합 단체전 (Group)
트램펄린 체조 (Trampoline Gymnastics)	트램펄린 (Individual)	트램펄린 (Individual)

㉔ 축구 (Football)



남자 (1)	여자 (1)
16팀 토너먼트 (16-team tournament)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㉕ 카누 (Canoe)



구분	남자 (11)	여자 (5)

카누 스프린트 (Canoe Sprint)	200m C-1 (Canoe Single (C1) 200m)	200m K-1 (Kayak Single (K1) 200m)
	1000m C-1 (Canoe Single (C1) 1000m)	500m K-1 (Kayak Single (K1) 500m)
	1000m C-2 (Canoe Double (C2) 1000m)	500m K-2 (Kayak Double (K2) 500m)
	200m K-1 (Kayak Single (K1) 200m)	500m K-4 (Kayak Four (K4) 500m)
	1000m K-1 (Kayak Single (K1) 1000m)	
	200m K-2 (Kayak Double (K2) 200m)	-
	1000m K-2 (Kayak Double (K2) 1000m)	-
	1000m K-4 (Kayak Four (K4) 1000m)	-
카누 슬라럼 (Canoe Slalom)	슬라럼 C-1 (Canoe Single (C1))	슬라럼 K-1 (Kayak Single (K1))
	슬라럼 C-2 (Canoe Double (C2))	-
	슬라럼 K-1 (Kayak Single (K1))	-

㉔ 탁구 (Table Tennis)



남자 (2)	여자 (2)
단식 (Singles)	단식 (Singles)
단체전 (Team)	단체전 (Team)

㉕ 태권도 (Taekwondo)



남자 (4)	여자 (4)
58kg급 (Under 58kg)	49kg급 (Under 49kg)
68kg급 (Under 68kg)	57kg급 (Under 57kg)
80kg급 (Under 80kg)	67kg급 (Under 67kg)
80kg 이상급 (Over 80kg)	67kg 이상급 (Over 67kg)

㉞ 테니스 (Tennis)



남자 (2)	여자 (2)	혼합(1)
단식 (Singles)	단식 (Singles)	혼합 복식 (Doubles)
복식 (Doubles)	복식 (Doubles)	-

㉟ 트라이애슬론 (Triathlon)



남자 (1)	여자 (1)
트라이애슬론 (Individual)	트라이애슬론 (Individual)

㊱ 펜싱 (Fencing)



남자 (5)	여자 (5)
에페 개인전 (Individual Epée)	에페 개인전 (Individual Epée)
플뢰레 개인전 (Individual Foil)	플뢰레 개인전 (Individual Foil)
사브르 개인전 (Individual Sabre)	사브르 개인전 (Individual Sabre)
플뢰레 단체전 (Team Foil)	에페 단체전 (Team Epée)
사브르 단체전 (Team Sabre)	플뢰레 단체전 (Team Foil)

㊲ 하키 (Hockey)



남자 (1)	여자 (1)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30 핸드볼 (Handball)



남자 (1)	여자 (1)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12팀 토너먼트 (12-team tournament)

- 메달

① 런던올림픽 메달

<런던올림픽 메달 :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올림픽메달은 올림픽현장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제작한다. 런던올림픽에서 입상자들에게 수여될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다. 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순은(純銀)과 청동으로 만들지만 금메달은 순은에 최소 6g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은메달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올림픽에서 수여될 금메달은 무게 400g으로 금과 은의 비율은 1.5%와 92.5%이다.

<런던올림픽 금메달>



2. Team Korea

- 선수단소개




선수단 현황	총 374명 (임원 129명, 선수 245명)
출전종목	22개 종목 근대5종,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철인3종, 펜싱, 하키, 핸드볼
근대 5종	임원 남경욱(감독), 김성진(코치) 선수 정진화, 황우진,
레슬링	임원 방대두(감독), 손상필(코치), 유종현(코치), 김종신(코치), 안한봉(코치) 선수 최규진, 정지현, 김현우, 김진혁, 이세열, 김진철, 이승철, 김형주, 엄지은
배구	임원 김형실(감독), 홍성진(코치) 선수 하준임, 김사니, 김해란, 임효숙, 김연경, 한유미, 한송이, 정대영, 황연주, 양효진, 김희진, 이숙자
배드민턴	임원 성한국(감독), 김문수(코치), 강경진(코치), 김지현(코치), 이석호(코치), 손승모(코치) 선수 이현일, 손완호, 정재성, 이용대, 유연성, 고성현, 배연주, 성지현, 김민정, 하정은, 김하나, 정경은
복싱	임원 이승배(감독), 쿠르카조브 마스(코치) 선수 신종훈, 한순철

사격	<p>임원 변경수(감독), 김선일(코치), 윤덕하(코치), 임장수(코치), 차영철(코치), 김기원(코치), 이도희(코치)</p> <p>선수 진중오, 한진섭, 김종현, 김병희, 김장미, 김학만, 김경애, 최영래, 나윤경, 정미라, 조용성, 김대웅, 강지은</p>
사이클	<p>임원 장윤희(감독), 도은철(코치), 조현미(코치)</p> <p>선수 조호성, 장선재, 박선호, 최승우, 박건우, 이민혜, 이은지, 이혜진, 박성백, 나아름</p>
수영	<p>임원 안종택(감독), 김민석(코치), TODD(코치), 박철규(코치), 조성원(코치), 장윤경(코치)</p> <p>선수 박태환, 최규용, 장규철, 정원용, 박형주, 박선관, 정다래, 백수연, 최혜라, 김혜진, 김서영, 김가을, 백일주, 박지호, 김수지, 박현선, 박현하, 한나경, 함찬미</p>
양궁	<p>임원 장영술(감독), 오선택(코치), 백웅기(코치), 박채순(코치), 박성수(코치)</p> <p>선수 오진혁, 임동현, 김법민, 최현주, 이성진, 기보배</p>
역도	<p>임원 이형근(감독), 김기웅(코치), 김순희(코치), 고광구(코치), 염동철(코치)</p> <p>선수 장미란, 문유라, 임지혜, 양은혜, 사재혁, 전상균, 지훈민, 김민재, 원정식, 김화승</p>
요트	<p>임원 진홍철(감독), 이재철(코치)</p> <p>선수 하지민, 이태훈, 박건우, 조성민</p>
유도	<p>임원 정훈(감독), 김건우(코치), 장성호(코치), 서정복(감독), 배상일(코치), 김은희(코치)</p> <p>선수 최광현, 조준호, 왕기춘, 김재범, 송대남, 황희태, 김성민, 정정연, 김경욱, 김잔디, 정다운, 황예슬, 정경미, 김나영</p>
육상	<p>임원 유영훈(코치), 이민호(코치), 아르카디(코치), 김기훈(코치), 김용복(코치)</p> <p>선수 정진혁, 이두행, 장신권, 김성은, 정윤희, 임경희, 김현성, 변영준, 박철성, 김동영, 임정현, 전영은, 정상진, 정혜림, 김유석, 최윤희, 김덕현</p>
조정	<p>임원 윤용호(감독), 장현철(코치)</p> <p>선수 김동용, 김예지, 김명신, 김솔지</p>
체조	<p>임원 조성동(감독), 최영신(코치), 최명진(코치), 이세연(코치), 김지희(코치)</p> <p>선수 김승일, 김희훈, 양학선, 김지훈, 김수면, 허선미, 손연재</p>
축구	<p>임원 홍명보(감독), 김태영(코치), 이케다세이고</p> <p>선수 정성룡, 이범영, 윤석영, 김영권, 김기희, 김창수, 황석호, 오재석, 김보경, 지동원, 구자철, 한국영, 백성동, 기성용, 박종우, 남태희, 박주영, 김현성</p>
탁구	<p>임원 추교성(코치), 유남규(감독), 강희찬(코치), 이철승(코치)</p> <p>선수 주세혁, 오상은, 유승민, 김경아, 박미영, 석하정</p>
태권도	<p>임원 김세혁(감독), 박종만(코치), 김현일(코치), 함준(코치)</p> <p>선수 이대훈, 차동민, 황경선, 이인중</p>
철인3종	<p>임원 신진섭(코치)</p> <p>선수 허민호</p>

펜싱	임원 김용율(감독), 최명진(코치), 이욱재(코치), 심재성(코치), 이상기(코치), 이정현(코치) 선수 남현희, 전희숙, 정길옥, 구본길, 원우영, 김정환, 최인정, 신아람, 정효정, 김지연, 이라진, 박경두, 정진선, 최병철
하키	임원 김윤동(감독), 신석교(코치), 임흥신(코치), 임정우(코치), 유문기(코치), 김윤(코치) 선수 이명호, 이승일, 남현우, 현혜성, 이남용, 홍은성, 윤성훈, 김영진, 오대근, 유효식, 여운곤, 서종호, 장종현, 강문규, 강문권, 차종복, 문영희, 김영란, 천은비, 한혜령, 박미현, 김옥주, 전유미, 차세나, 천슬기, 김종희, 김종은, 장수지, 김다래, 이선옥, 박선미, 박기주
핸드볼	임원 최석재(감독), 홍기일(코치), 강재원(감독), 황보성일(코치), 백상서(코치), 신창호(코치) 선수 박찬영, 이창우, 박종규, 박경석, 정의경, 엄효원, 고경수, 백원철, 윤경신, 이재우, 정수영, 임덕준, 정한, 유동근, 문경하, 주희, 김차연, 김정심, 조호비, 우선희, 정유라, 최임정, 유은희, 심해인, 권한나, 김은아, 정지해, 이은비

- 경기 일정

- *  메달 확정 경기
- * 예선과 결선으로 나뉘는 경기는 예선결과를 알수없기 때문에 예선일정만 표기.
(예:28일 남자사격 공기권총 10m 예선후 결선 진행. 진중오선수 메달 예상되나 결선일정은 미표기)
- * 단체전 출전선수는 대한민국으로 표기

7.28 (토)		
시간	종목	선수
AM 05:00	개막식	
PM 04:15	사격 여자 10m 공기 소총 예선	나윤경, 정미라
PM 06:00	사이클 도로 남자 경주 	박성백
PM 06:00	수영 남자 400m 혼영 예선 1조	정원용
PM 06:47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예선 1조	박태환
PM 07:00	체조 남자 예선 디비전 1	김승일, 김지훈, 김수면, 김희훈, 양학선
PM 07:15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1경기	대한민국 vs 스페인
PM 07:17	수영 여자 400m 혼영 예선 1조	김서영
PM 08:00	사격 남자 10m 공기 권총 예선	진중오, 최영래

PM 08:30	조정 남자 싱글스컬 예선 1조	김동용
PM 09:30	조정 여자 싱글스컬 예선 1조	김예지

7.29 (일)		
시간	종목	선수
AM 04:00	여자 배구 예선 B조 2경기	대한민국 vs 미국
PM 05:00	사격 여자 10m 공기 권총 예선	김병희, 김장미
PM 05:30	체조 여자 예선 디비전 1	허선미
PM 06:20	수영 남자 200m 자유형 예선 1조	박태환
PM 06:40	조정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 예선 1조	대한민국
PM 06:51	수영 여자 100m 평영 예선 1조	김혜진
PM 07:15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1경기	대한민국 vs 크로아티아
PM 07:33	수영 여자 400m 자유형 예선 1조	김가을
PM 9:30	복싱 남자 라이트급(60kg) 32강 2경기	한순철
PM 09:45	여자 하키 예선 A조 2경기	대한민국 vs 중국

7.30 (월)		
시간	종목	선수
AM 01:15	남자 축구 예선 B조 4경기	대한민국 vs 스위스
PM 04:30	남자 하키 예선 B조 1경기	대한민국 vs 뉴질랜드
PM 05:00	사격 남자 스키트 예선 1일차	조용성
PM 05:00	사격 남자 10m 공기 소총 예선	한진섭, 김중현
PM 06:00	수영 여자 200m 자유형 예선 1조	백일주
PM 06:00	역도 남자 62kg급 B조	지훈민
PM 06:49	수영 여자 200m 혼영 예선 1조	최혜라
PM 07:15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4경기	대한민국 vs 덴마크
PM 07:30	여자 배구 예선 B조 5경기	대한민국 vs 세르비아
PM 08:00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딩기 1경주	하지민

PM 08:30	역도 여자 58kg급 B조	양은혜
PM 09:15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딩기 2경주	하지민

7.31 (화)		
시간	종목	선수
PM 05:00	사격 남자 스키트 예선 2일차	조용성
PM 06:00	역도 남자 69kg급 B조	원정식
PM 06:25	수영 여자 200m 접영 예선 1조	최혜라
PM 06:47	수영 남자 200m 평영 예선 1조	최규웅
PM 07:15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4경기	대한민국 vs 헝가리
PM 08:00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1경주	이태훈
PM 08:45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2경주	이태훈
PM 10:00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딩기 3경주	하지민
PM 11:15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딩기 4경주	하지민

8.1 (수)		
시간	종목	선수
AM 00:00	여자 하키 예선 A조 6경기	대한민국 vs 영국
PM 05:00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 정확도	김장미, 김경애
PM 05:30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7경기	대한민국 vs 노르웨이
PM 06:00	역도 남자 77kg급 B조	사재혁
PM 06:20	수영 남자 200m 배영 예선 1조	박형주
PM 06:47	수영 여자 200m 평영 예선 1조	백수연, 정다래
PM 07:14	수영 남자 200m 혼영 예선 1조	정원용
PM 08:00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3경주	이태훈
PM 08:00	사격 여자 25m 권총 예선 속사	김장미, 김경애
PM 08:05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딩	하지민
PM 08:30	역도 여자 69kg급 B조	문유라

PM 08:30	사이클 도로 여자 독주 	나아름
PM 08:45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4경주	이태훈
PM 09:20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당기 6경주	하지민




8.2 (목)		
시간	종목	선수
AM 01:00	남자 축구 예선 B조 6경기	대한민국 vs 가봉
AM 05:15	남자 하키 예선 B조 6경기	대한민국 vs 독일
AM 06:00	여자 배구 예선 B조 9경기	대한민국 vs 브라질
PM 04:30	여자 하키 예선 A조 7경기	대한민국 vs 일본
PM 05:00	펜싱 여자 단체 플러레 16강 2경기	대한민국
PM 05:30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7경기	대한민국 vs 스페인
PM 06:27	수영 여자 800m 자유형 예선 1조	한나경
PM 06:30	사격 남자 25m 속사 권총 예선 1스태이지	김대웅
PM 07:21	수영 남자 100m 접영 예선 1조	장규철
PM 07:46	수영 여자 200m 배영 예선 1조	함찬미
PM 08:0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1경주	대한민국
PM 09:3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2경주	대한민국

8.3 (금)		
시간	종목	선수
AM 01:00	남자 축구 예선 B조 6경기	대한민국 vs 가봉
AM 05:15	남자 하키 예선 B조 6경기	대한민국 vs 독일
AM 06:00	여자 배구 예선 B조 9경기	대한민국 vs 브라질
PM 04:30	여자 하키 예선 A조 7경기	대한민국 vs 일본
PM 05:00	펜싱 여자 단체 플러레 16강 2경기	대한민국
PM 05:30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7경기	대한민국 vs 스페인
PM 06:27	수영 여자 800m 자유형 예선 1조	한나경
PM 06:30	사격 남자 25m 속사 권총 예선 1스태이지	김대웅

PM 07:21	수영 남자 100m 접영 예선 1조	장규철
PM 07:46	수영 여자 200m 배영 예선 1조	함찬미
PM 08:0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1경주	대한민국
PM 09:3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2경주	대한민국

8.4 (토)		
시간	종목	선수
AM 00:00	사이클 여자 경륜 1라운드 1조	이혜진
AM 03:00	탁구 남자 단체 1라운드 1경기	대한민국
AM 05:15	남자 하키 예선 B조 9경기	대한민국 vs 벨기에
PM 05:00	사격 여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나윤경, 정미라
PM 05:00	사격 여자 트랩 예선	강지은
PM 06:20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 예선 A조	최윤희
PM 06:30	펜싱 여자 단체 에페 8강 1경기	대한민국
PM 06:30	사이클 남자 옴니움 250미터 플라잉스타트	조호성
PM 06:45	여자 하키 예선 A조 10경기	대한민국 vs 네델란드
PM 07:15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10경기	대한민국 vs 세르비아
PM 08:00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당기 9경주	하지민
PM 09:15	요트 남자 레이저 - 1인승 당기 10경주	하지민
PM 10:00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7경주	이태훈
PM 10:0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5경주	대한민국
PM 10:45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8경주	이태훈
PM 11:15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6경주	대한민국
PM 11:30	역도 남자 94kg급 B조	김민재

8.5 (일)		
시간	종목	선수
AM 00:54	사이클 남자 옴니움 30km 포인트 레이스	조호성

AM 01:00	육상 남자 20km 경보 	박철성, 김현섭, 변영준
AM 02:25	사이클 남자 옴니움 엘리미네이션 레이스	조호성
PM 05:00	사격 남자 50m 권총 예선	진종오, 최영래
PM 05:30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13경기	대한민국 vs 스웨덴
PM 06:00	사이클 남자 옴니움 4km 개인 추발	조호성
PM 06:58	사이클 여자 스프린트 예선	이혜진
PM 07:00	육상 여자 마라톤 	정윤희, 임경희, 김성은
PM 07:30	여자 배구 예선 B조 13경기	대한민국 vs 중국
PM 09:45	남자 하키 예선 B조 11경기	대한민국 vs 인도
PM 10:00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9경주	이태훈
PM 10:45	요트 남자 RS:X 윈드서핑 10경주	이태훈
PM 11:00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여자 듀엣 테크니컬	대한민국
PM 11:30	역도 여자 +75kg급 A조 	장미란

8.6 (월)		
시간	종목	선수
AM 01:01	사이클 남자 옴니움 15km 스크래치레이스	조호성
AM 02:16	사이클 남자 옴니움 1km 타임트라이얼 	조호성
PM 05:00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한진섭, 김종현
PM 06:05	육상 여자 100m 허들 1라운드 1조	정혜림
PM 08:0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딩기 7경주	대한민국
PM 09:15	요트 남자 470 - 2인승 딩기 8경주	대한민국
PM 10:30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14경기	대한민국 vs 덴마크
PM 11:00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여자 듀엣 프리 루틴 - 예선	대한민국
PM 11:30	역도 남자 105kg급 B조	김화승

8.7 (화)		
시간	종목	선수
AM 00:00	여자 하키 예선 A조 14경기	대한민국 vs 벨기에
AM 00:08	사이클 여자 옴니움 250m 플라잉스타트	이민혜


AM 01:06	사이클 여자 옴니움 20km 포인트 레이스	이민혜
AM 02:18	사이클 여자 옴니움 엘리트네이션 레이스	이민혜
PM 04:30	남자 하키 예선 B조 13경기	대한민국 vs 네델란드
PM 06:19	사이클 여자 옴니움 3km 개인추발	이민혜
PM 06:45	육상 남자 세단뛰기 예선 A조	김덕현
PM 07:30	남자 트라이애슬론 	허민호
PM 08:00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9경주	대한민국
PM 09:15	요트 남자 470 - 2인승 당기 10경주	대한민국
PM 11:30	역도 남자 +105kg급 B조	전상균

8.8 (수)		
시간	종목	선수
AM 00:07	사이클 여자 옴니움 10km 스크래치레이스	이민혜
AM 00:53	사이클 여자 옴니움 500m 타임트라이얼 	이민혜
PM 06:00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예선 A조	김유석

8.9 (목)		
시간	종목	선수
AM 03:00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예선	김수지
AM 03:05	육상 남자 창던지기 예선 A조	정상진
PM 08:00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1	손연재
PM 09:18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2	손연재

8.10 (금)		
시간	종목	선수
PM 08:00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3	손연재
PM 09:18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 로테이션 4	손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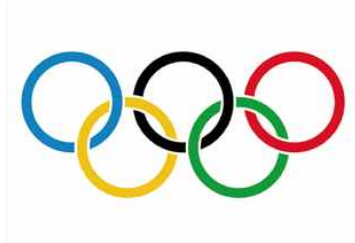
8.11 (토)		
시간	종목	선수
AM 03:00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예선	박지호

PM 04:45	근대5종 남자 펜싱	황우진, 정진화
PM 05:00	육상 남자 50km 경보 	김동영, 박철성, 임정현
PM 09:20	근대5종 남자 수영	황우진, 정진화
PM 11:20	근대5종 남자 승마	황우진, 정진화

8.12 (일)		
시간	종목	선수
AM 01:00	육상 여자 20km 경보 	전영은
AM 02:45	근대5종 남자 육상/사격 	황우진, 정진화
PM 04:00	근대5종 여자 펜싱	양수진
PM 07:00	육상 남자 마라톤 	장신권, 이두행, 정진혁
PM 08:35	근대5종 여자 수영	양수진
PM 10:35	근대5종 여자 승마	양수진

8.13(월)		
시간	종목	선수
AM 02:00	근대5종 여자 육상/사격 	양수진
PM 11:59	폐막식	

- 역대성적



<역대 올림픽 대한민국 성적>

연 도	개최지	금	은	동	순 위
1948	영국 런던	0	0	2	32
1952	핀란드 헬싱키	0	0	2	37
1956	호주 멜버른	0	1	1	29
1960	이탈리아 로마	0	0	0	
1964	일본 도쿄	0	2	1	26
1968	멕시코 멕시코시티	0	1	1	36
1972	독일 뮌헨	0	1	0	33
1976	캐나다 몬트리올	1	1	4	19
1980	소련 모스크바	불 참			
1984	미국 LA	6	6	7	10
1988	대한민국 서울	12	10	44	4
1992	스페인 바르셀로나	12	5	12	7
1996	미국 애틀랜타	7	15	5	10
2000	호주 시드니	8	10	10	12
2004	그리스 아테네	9	12	9	9
2008	중국 베이징	13	10	8	7

5. 스포츠문화연구소 소개

1) 연구소 로고



아름다운 한글을 형상화한 연구소 로고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상징하는 자주색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간결한 한글 디자인은 초심을 잃지말자는 서약입니다. 오각형 집모양은 아직도 개발독재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스포츠의 현실을 극복하고 스포츠를 위한, 삶을 위한, 인간을 위한 한국스포츠의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2) 설립 취지

스포츠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스포츠는 소중한 우리의 몸을 이용한 신체활동입니다. 몸과 몸이 부딪힐 땐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인문이되기도 합니다. 산업화를 넘어 문화로 발전할 때 스포츠는 소비되고 향유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가 요구하는 도전과 희생이란 본질을 보면 스포츠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스포츠란 점에선 스포츠는 또한 복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는 아직도 개발독재시대에 멈춰있습니다.

한국스포츠는 이데올로기에 무너지고 권력에 종속되면서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란 허상의 이미지로 조작되었습니다. 개발독재시대가 스포츠에 부과한 기능은 정치적 프로파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킨 것이 한국스포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프로시대에 접어들며 스포츠는 자본의 통제에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스포츠를 그들의 이익에 부합시키기 위해 공정과 준법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승리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기는 것이 스포츠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 선수를 도구화하고 지도자를 소모품화하고 제도를 개악하는 것이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스포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통제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인권과 권리와 교육과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한국스포츠발전과 스포츠 바로잡기란 희망을 키우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인권과 교육과 문화와 산업과 미디어등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스포츠를 바라보며 애정을 쏟을 것입니다.

3) 연구분과

- 스포츠문화연구 - 스포츠사료연구 - 스포츠정책연구 - 스포츠문화교육연구 - 스포츠미디어연구

4) 사업계획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연구소 본연의 임무인 학술활동은 물론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감하는 대중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심포지엄, 토론회, 세미나, 간행물 형식의 학술행사외 토크 콘서트, 팟캐스트등의 대중사업도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5) 회원가입

스포츠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문화연구소카페 <http://cafe.naver.com/cultureandsports> (네이버 카페 스포츠문화연구소)

6) 2012. 7. 6 창립식

- 1부 강연 (스포츠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2부 토크콘서트 (한국스포츠, 사랑과 전쟁)



- 클로징 연구원 소개

